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023.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표의원 김현미

제 출 문

본 2023년도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 현 미

연구모임 회원

- 대 표**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회 원** **최원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김영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김재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오영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
- 이승찬** 대전광역시의체육회 회장
- 김세환**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 황성하**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정민희**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 방병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과장
- 간 사** **김진성**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팀장

연구모임 지원

- 홍순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김효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사 무 관
- 김재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주 무 관
- 이은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주 무 관

목 차

| | |
|--|-----|
| I.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며 | 1 |
| II. 연구모임 추진결과 | 5 |
| III. 연구모임 활동 내용 | 13 |
| 1.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 | 15 |
| 2. 제2차 간 담 회 | 39 |
| 3. 대전광역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 | 43 |
| 4. 연구용역 수행 | 52 |
| 5. 제3차 간 담 회 | 56 |
| 6. 제4차 간 담 회 및 토론회 | 68 |
| 7. 제5차 간 담 회 | 168 |
| IV.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별첨) |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

I.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I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현미입니다.

지난 4월에 결성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과 대전의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모임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세종·대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5차례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과 세종시체육회, 대전시체육회, 세종시청 체육
진흥과,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연구모임 회원이신 최원석·김재형·김영현 의원님과 함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선수촌, 경기장 등 대회 기반시설 조성 및 대회 준비·운영 등에 투입할 국비 예산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성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까지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해주신 최원석·김재형·김영현 의원님을 비롯한 오영철(세종시체육회 회장), 이승찬(대전시체육회 회장), 김진성(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장), 김세환(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황성화(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정민희(법률사무소 이음 대표변호사), 방병웅(세종시청 체육진흥과 과장)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모임 활동에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직원 분들과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연구모임 추진결과

I 추진배경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지역상생 발전 방안 필요성 제기
- 대회를 계기로 경기장과 수요자들이 집중된 대전과 직접 연결하여 세종지역 관광개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 성장 전략 구축 필요
- 국제종합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 숙박, 교통, 안전,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에서 세종·대전 간 발전방안 모색 필요

II 추진방향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연계한 세종·대전 스포츠 발전 전략 마련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추진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연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 발전 전략 도출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관련 협력방안 모색

III 추진개요

○ (연구모임명)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 과제명: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 효과 제고를
위한 대전-세종 연계 협력 방안 연구

○ (활동기간) '23. 4. ~ '23. 11. 30.까지

○ (회원현황)

| 구 분 | 소 속 (직 위) | 성 명 | 비고 |
|-----|-------------------------|-----|----|
| 대 표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의원) | 김현미 | |
| 간 사 |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팀장) | 김진성 | |
| 회 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 최원석 | |
| 회 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 김영현 | |
| 회 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 김재형 | |
| 회 원 | 세종시체육회 (회장) | 오영철 | |
| 회 원 | 대전시체육회 (회장) | 이승찬 | |
| 전문가 | 한밭대학교 산학융합학부 (교수) | 김세환 | |
| 전문가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황성하 | |
| 전문가 | 법률사무소 이음 변호사 | 정민회 | |
| 집행부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과장) | 방병웅 | |

○ (주요내용)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전략 마련
- 세종과 대전지역의 공동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분야 등 협력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및 협력 방안 구축
-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

○ (소요예산) 25,000천원(활동비 5,000천원 / 연구용역비 20,0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천원(간담회, 토론회, 보고서 발간 등)
- 의원정책개발비: 20,000천원(정책연구용역비)

○ (관련부서)

| 구 분 | 담당부서 | 업 무 | 비고 |
|------|---|----------------------|----|
| 세종시청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TF)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총괄 | |

IV 세부 추진일정

①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 → ② 제2차 간담회 → ③ 제3차 간담회(연구용역 착수보고)→ ④ 제4차 간담회 및 토론회(연구용역 중간보고) → ⑤ 제5차 간담회(연구용역 최종보고) → ⑥ 연구모임 보고서 발간 및 배부

V 세부 추진내용

①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

- (일자/장소) '23. 4. 11.(화)/ 시의회 의정실(601호)
- (참석인원) 8명(회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 (주요내용) 연구모임 발족식 및 간담회 실시

② 제2차 간담회

- (일자/장소) '23. 6. 14.(수)/ 시의회 대회의실(1층)
- (참석인원) 8명(회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 (주요내용) 연구용역 과업범위 및 세부과제 등 협의

③ 대전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

- (일자/장소) '23. 7. 5.(수)/ 대전시의회 소통실(3층)
- (참석인원) 10명(세종시의원 4명*, 대전시의원 4명, 교수 2명)
* 연구모임 위원 중 의원 4명(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최원석) 참석
- (주요내용)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현안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

④ 연구용역 수행

- (용역명)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3. 8. 18. ~ 2023. 11. 15.(3개월)
- (용역비) 금19,000천원

5 제3차 간담회

- (일자/장소) '23. 8. 21.(월)/ 시의회 대회의실(1층)
- (참석인원) 8명(회원 7명, 공동연구원 1명)
- (주요내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현안사항 논의

6 제4차 간담회 및 토론회

- (일자/장소) '23. 10. 30.(월)/ 시의회 대회의실(1층)
- (참석인원) 30여명(연구모임 회원, 토론자, 대전시의회 의원3명,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성공적인 개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

7 제5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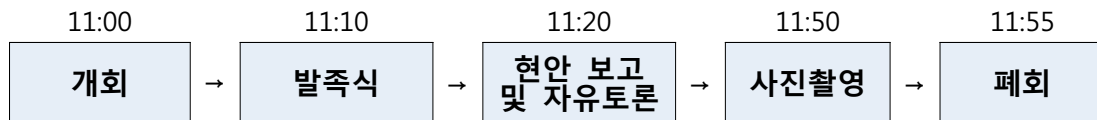
- (일자/장소) '23. 11. 13.(월)/ 시의회 의정실(6층)
- (참석인원) 9명(회원 8명, 공동연구원 1명)
- (주요내용) 성공적인 개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Ⅲ. 연구모임 활동내용

발족식 및 1차 간담회 (2023. 4. 11.)

□ 회의 개요

- (일시) 2023. 4. 11.(화) 11:00 ~ 11:55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601호)
- (참석) 8명(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김재형 의원 등 회원 7, 관계공무원 1)
- (내용) 연구모임 발족식 및 간담회 실시
- (진행순서)



□ 주요 내용

- 인적·물적 스포츠 인프라 구축 필요
 - (물적) 세종시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및 관련 기반 시설(숙박, 교통 등) 구축 필요
 - (인적) 우수한 스포츠 인재가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종시 체육중·고 설립 등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종·대전의 일원화된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개발 제안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후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정책 발굴을 통해 추후 세종시 스포츠 활성화 기대

활동사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내용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3. 1.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청권 글로벌 홍보 및 시민 자긍심 고취
 - 메가스포츠 인프라 구축, 체육시설 확충 등 효율적 대회 준비 및 운영

I 대회 현황

□ 대회 개요

-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이벤트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산업 중심도시들과 교류 기회 확보

< CHUNGCHONG 2027 World University Games Summer >

- (대 회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대회기간) 2027. 8. 1. ~ 8. 12. / 12일간
- (개최장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
- (참가규모) 150여개국, 15,000여명 참가
- (경기종목) 18개 종목 (기본 15종목, 선택 3종목)



※ 세종시 개최 : 3개 종목(육상, 탁구, 수구) / 폐회식

□ 대회 위상 및 역사

- (명칭변경) 유니버시아드 → 세계대학경기대회('23년~)
- (대회성격) 2년마다 한번 씩 홀수해 개최
- (참가자격) 18세 이상 ~ 25세 이하 대학생
- (대회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대회위상)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약 40%가 하계대회에서 메달획득
- (대회역사) 1회(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 ~ 30회(2019년 이탈리아 나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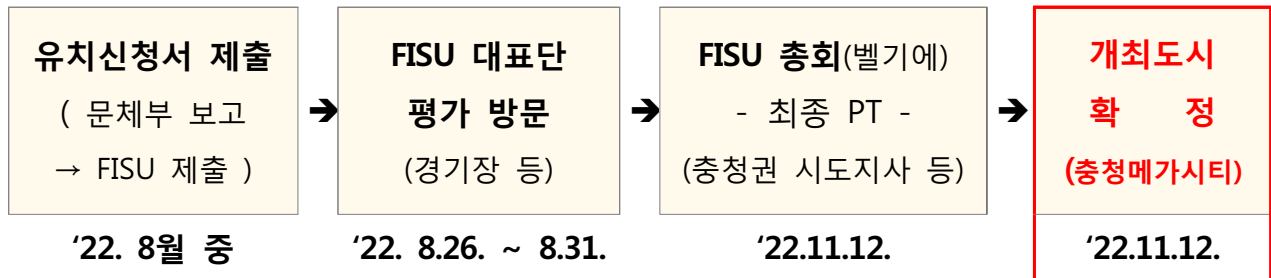
※ '21년 미개최(코로나19) → '23년 제31회 중국 청두 → '25년 제32회 독일 라인-루르

□ 유치 결정

- FISU 지휘부 평가 방문('22.8.26~31.) 이후 **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개최도시 최종 결정**(벨기에 브뤼셀, '22.11.12.)

- 4개 시도 공동개최로 **충청권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

- 추진일정



□ 그간 추진현황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국회) : '20. 7.10.
- 충청권 4개시도 지방의회 유치동의안 의결 : '20.11.~12.
- U대회 유치 추진단 구성 운영(지방자치회관/16명) : '21. 1.
- 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창립총회 : '21. 4. 5.
- 국내 유치 신청도시 선정(대한체육회) : '21. 6. 3.
- 유치신청서(개최계획서 등) 승인(문체부) : '21. 7. 20.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문체부) 및 설립 등기 : '21. 8. 27.
- 대회유치의향서 및 서한문 제출(→FISU) : '21. 9. 1.
- 법인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완료사실 보고(문체부) : '21. 10. 1.
- 유치후보도시(충청권, 美노스캐롤라이나) 선정(FISU) : '22. 1. 24.
- 국제행사 승인(기재부) : '22. 7. 29.
- 유치신청서 제출(문체부 보고→FISU) : '22. 8.
- FISU 대표단 평가 방문(경기장 등) : '22. 8. 26.
- 개최도시 최종 결정(벨기에 브뤼셀, '22.11.12.) : '22. 11.12.

□ 대회 재정

○ 소요예산(안) : 총 5,812억원

(단위 : 억원)

| 주요항목별 소요액 | | 소요자원 확보 | |
|-----------|------------------|---------|--------------------------------------|
| 시설비 | 2,690 (46.3%) | 국 비 | 1,744 (30%) 시설비 807 / 운영비 937 |
| 운영비 | 3,122 (53.7%) | 지 방 비 | 3,087 (53%) 시설비 1,883 / 운영비 1,204 |
| | | 자체수익 | 981 (17%) |
| 합 계 | 5,812 | 합 계 | 5,812 |

※ 대회 기본계획서 기준 (향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경기 종목 : 18개 종목 [기본 15, 선택 3]

| | | | |
|----|--------|---|---|
| 기본 | 15개 종목 | ⇒ | 양궁,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경영, 탁구, 수구, 기계체조, 리듬체조, 태권도,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
| 선택 | 3개 종목 | ⇒ |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 ※ FISU와 협의 후 확정(예정) |

□ 주요 시설

○ 30개 경기장(18종목), 26개 훈련장(경기장 내 13, 인근시설 13)

- 4개 시도 분산, 선수촌으로부터 약 50km 이내 위치하여 접근성 우수

| 대 전 | 세 중 | 충 북 | 충 남 |
|------------|------------|--|------------------------|
| 펜싱, 경영, 축구 | 육상, 탁구, 수구 | 양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태권도, 체조, 배드민턴, 축구, 조정 | 수구, 테니스, 배구, 축구, 비치발리볼 |

○ 미디어센터 : 원활한 중계 및 취재를 위해 4개 시·도 설치 운영

- (메인) 대전 1개소('22. 4. 준공)

- (보조) 세종(기존시설), 충북('23.12. 준공), 충남('25.6. 준공예정)

※ 4개의 미디어센터를 단일 네트워크로 구성, 충청권 통합 스마트 미디어 인프라 구축

○ 선수촌 : 세종(메인) 1개소, 충주·보령(보조) 각 1개소

- (메인) 세종시 개발지역 임대아파트 활용(5-2지구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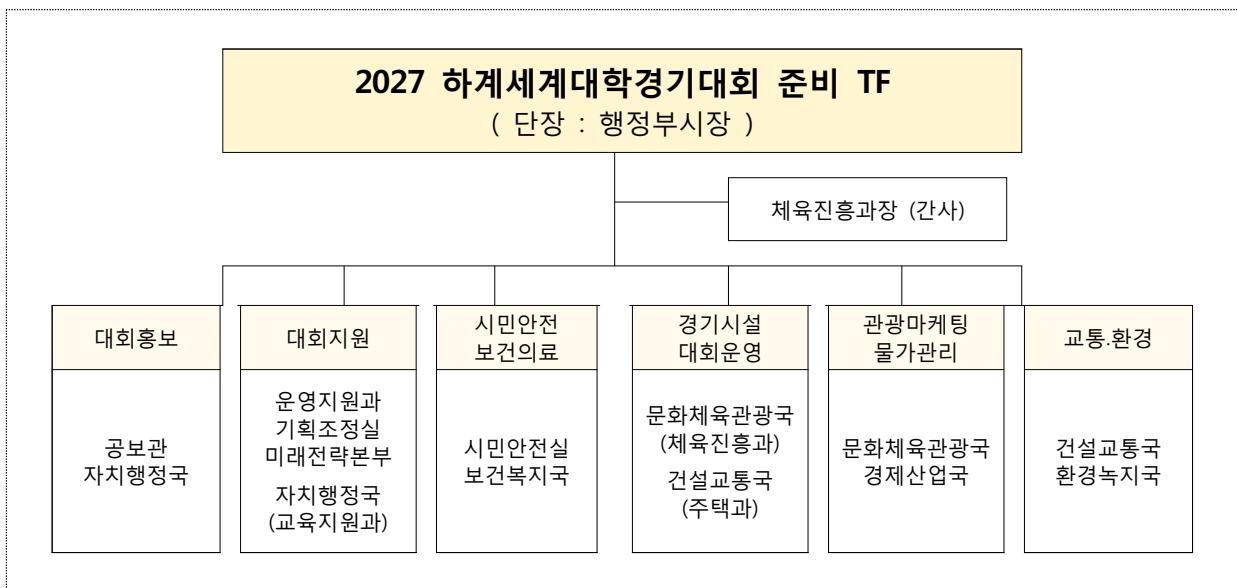
- (보조) 해당지역 숙박시설(리조트, 연수원 등) 활용 ※ 조정, 유도, 태권도, 배드민턴

1 대회준비 TF

- (TF 구성) 유관부서 합동 TF(단장:행정부시장)를 구성(11.29.)하여, 조직위원회 출범 이전 자체 추진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대비

▶ (단 장) 행정부시장 ▶ (간 사) 체육진흥과장
▶ (인 원) 20명 이내 ▶ (운 영) '22.11. ~ '23.5. 조직위 구성시까지

- (TF 운영)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연차별 로드맵 확정 및 분과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 (단기) 종합체육시설 및 선수촌 적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중장기) 도로·교통인프라, 문화·관광콘텐츠, 도시환경 정비, 홍보·마케팅, 의료·안전, 보도지원, 경기운영, 시민참여 등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추진내용 |
|------------------|--|
| '23..1월~ (매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대응계획 수립 및 보고 (2027 타임스케줄 수립 등) ▶ 부서별 주요 추진과제 지속 발굴·보완 등 |
| '23.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이후 ➡ 행정지원협의회로 전환 운영 |

2 유치위원회 ['23.5월 해산·청산 예정]

□ 설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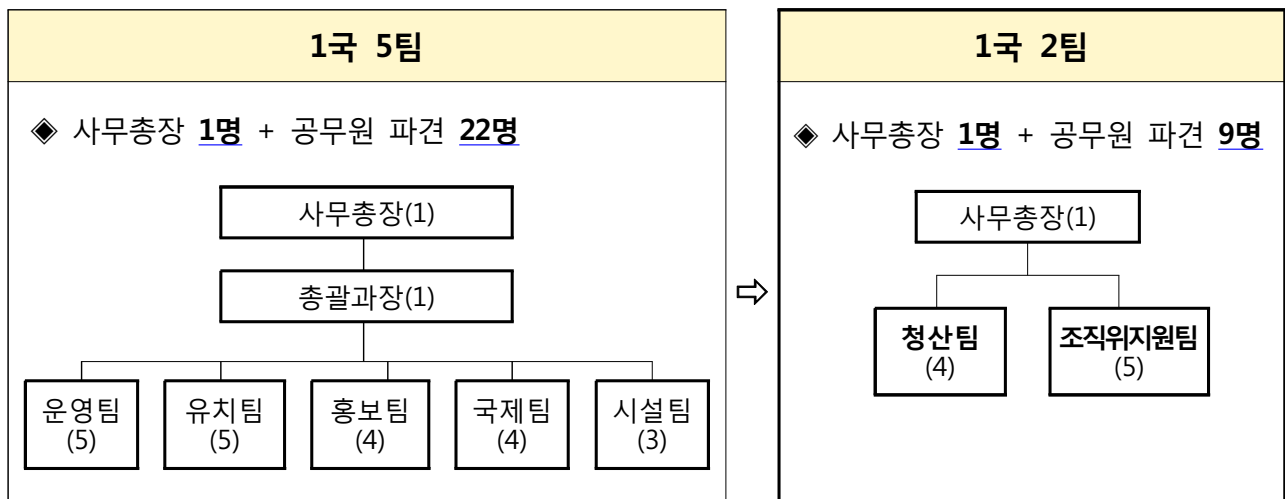
- (목 적)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 (명 칭)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 (형 태) 국내법(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 / 지방자치회관
- (회 원) 21명 ※ 4개 시도지사,,, 체육회장, 대학총장 등 추천자로 구성

□ 주요사무

-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 사업계획, 조직 구성 등 문체부·4개 시도와 협의하여 진행
- 유치위원회 해산 및 청산업무 수행
 - 유치위원회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으로 법인 해산·청산 추진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 조직위원회 설립 전까지 FISU 사무국과의 대화채널 유지

□ 조직운영

- 사무국 축소 운영('23.1.1.~) / 1국 2팀 10명



3 조직위원회 ['23.4월 출범 예상]

- (명 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성 격) 문체부 인가 재단법인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및 제11조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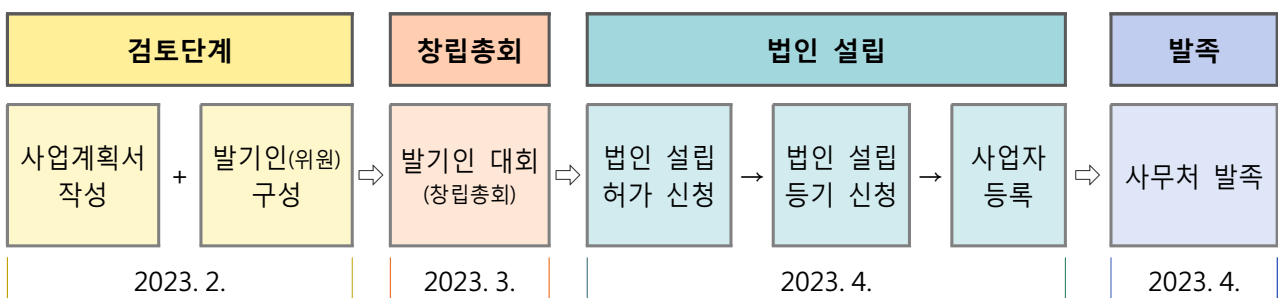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성) 하계 U-대회 유치위에서 조직위원회 출범 및 구성 업무 추진
 ※ 위원(안) : 대한민국 IOC위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대회 종목 경기연맹, NGO 관계자 등
- (운 영) 문체부, 대한체육회, 중앙부처, 4개 시·도 등 직원 파견

| 단 계 | 조 직 구 성 | 주 요 업 무 |
|----------------------------------|--|--|
| 1단계 ('23.5.~'24.12.) | 1총장, 2본부, 5부, 2담당관, 19팀 (100명 정도) |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 수립 |
| 2단계 ('25.1.~'26.6.) | 1총장, 3본부, 10부, 2담당관, 1소, 28팀 (180명 정도) | 분야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 3단계 ('26.7.~'27.6.) | 1총장, 7본부, 19부, 1단, 1소, 2담당관, 63팀 (400명 정도) |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시설, 경기운영, 지원분야 등) |
| 현장운영 ('27.7.~'27.8.) | 1총장, 7본부, 19부, 1단, 1소, 2담당관, 63팀 (400명 정도) | 최종 마무리 준비·리허설 및 실전 대회 운영 |
| 대회정산 ('27.9.~'28.12.) | 1본부, 3부, 2담당관, 14팀 (96명 정도) | 정산, 결산, 조직위 해산 등 (3단계 축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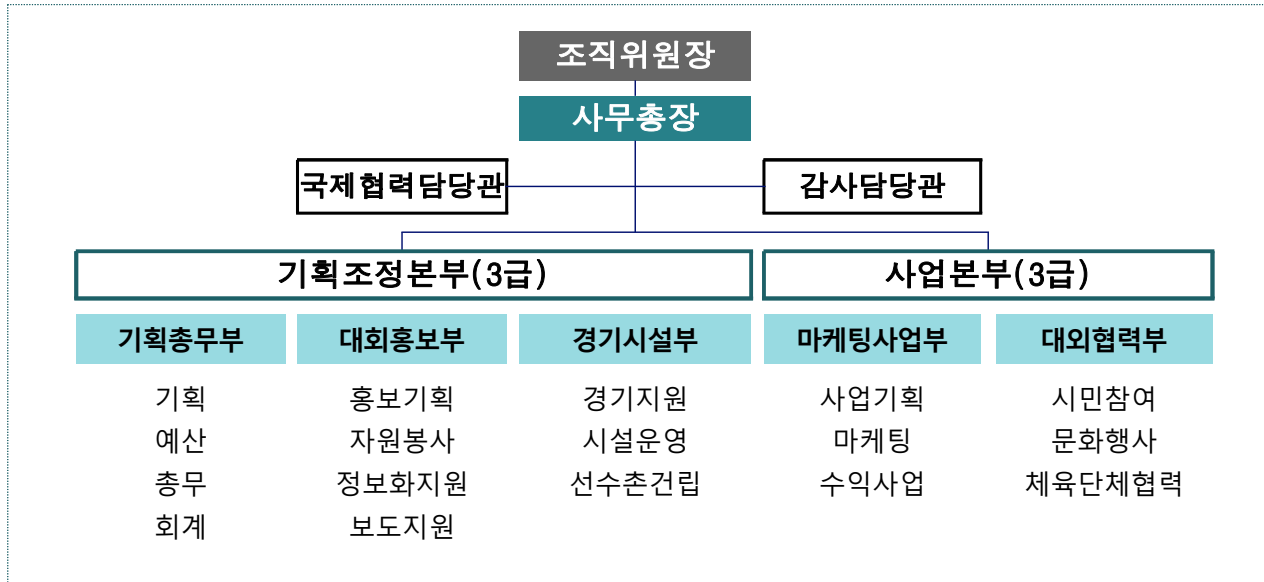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안 기준(참고용)

○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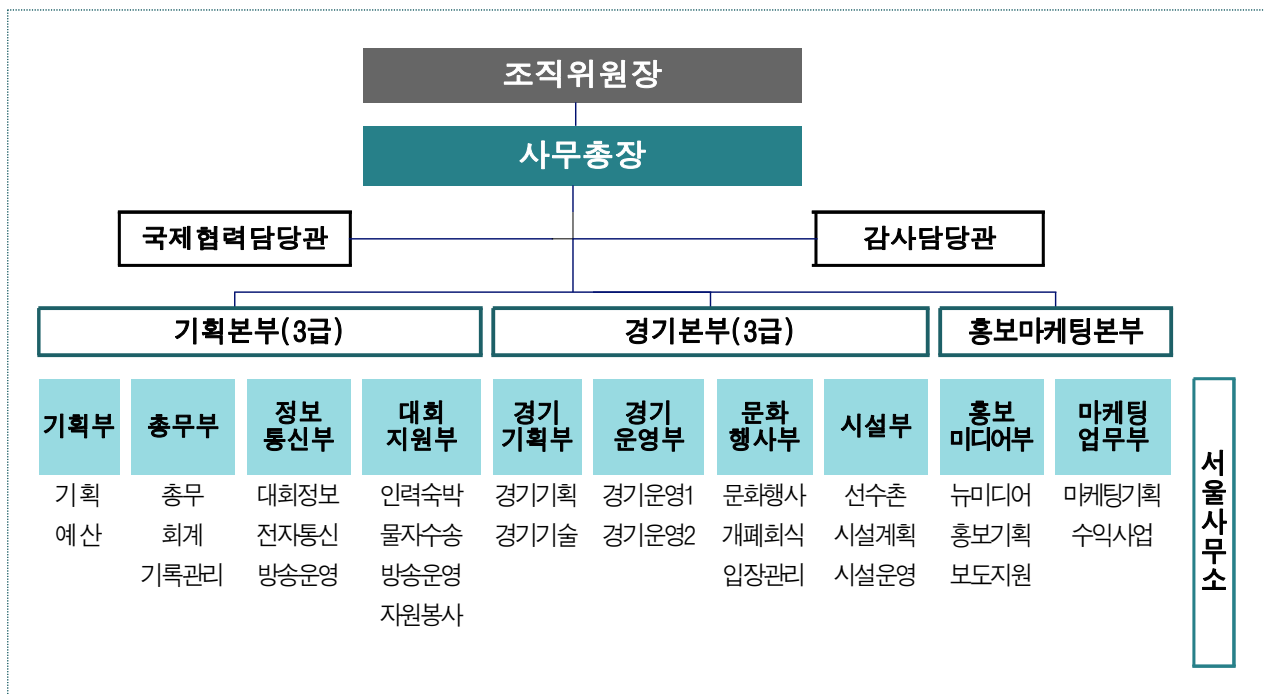
□ 1단계 조직

- 기간 : 2023. 5. ~ 2024. 12.
- 직제 및 정원 : 1총장 2본부 5부 2담당관 19팀,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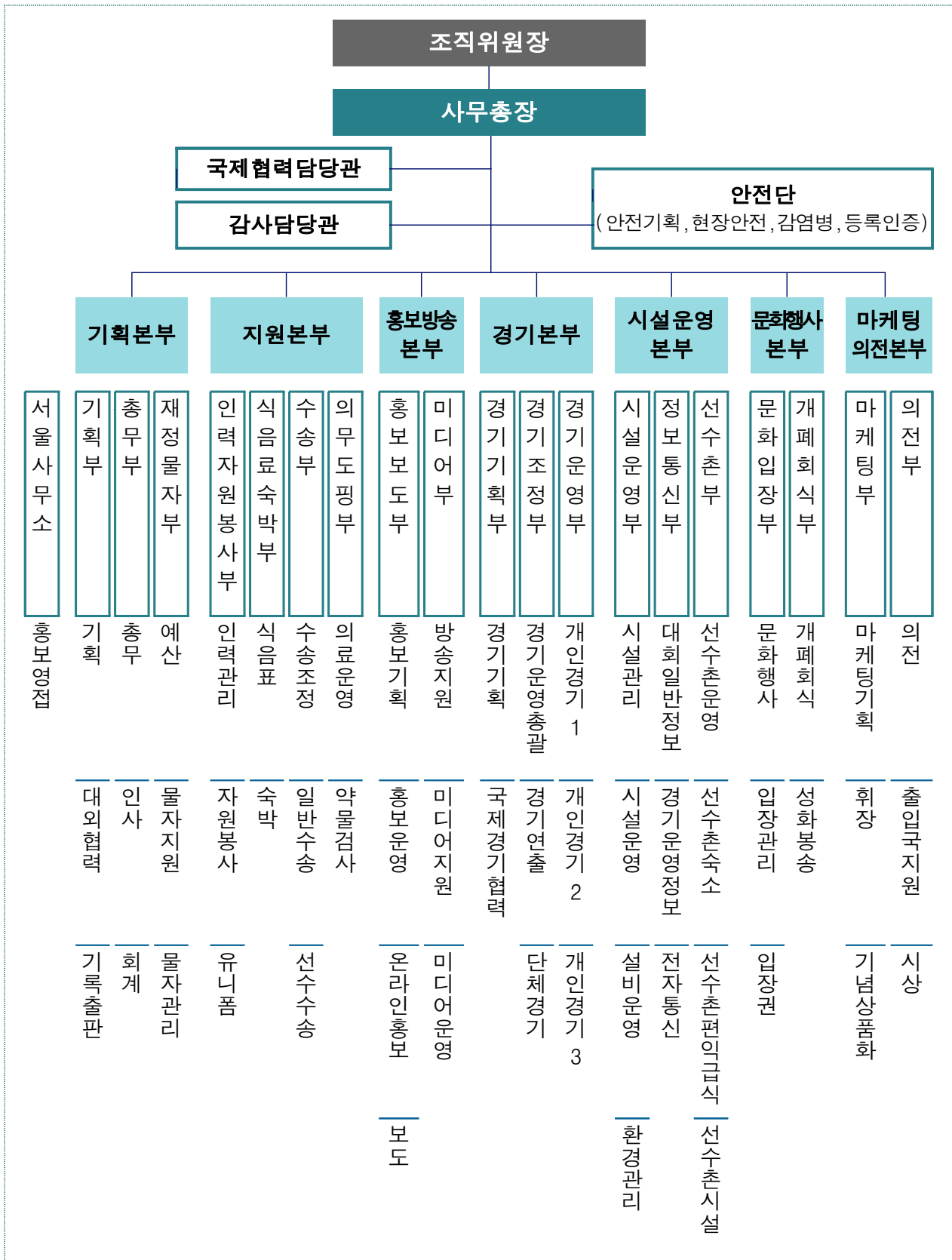
□ 2단계 조직

- 기간 : 2025. 1. ~ 2026. 6.
- 직제 및 정원 : 1총장 3본부 10부 2담당관 1소 28팀, 1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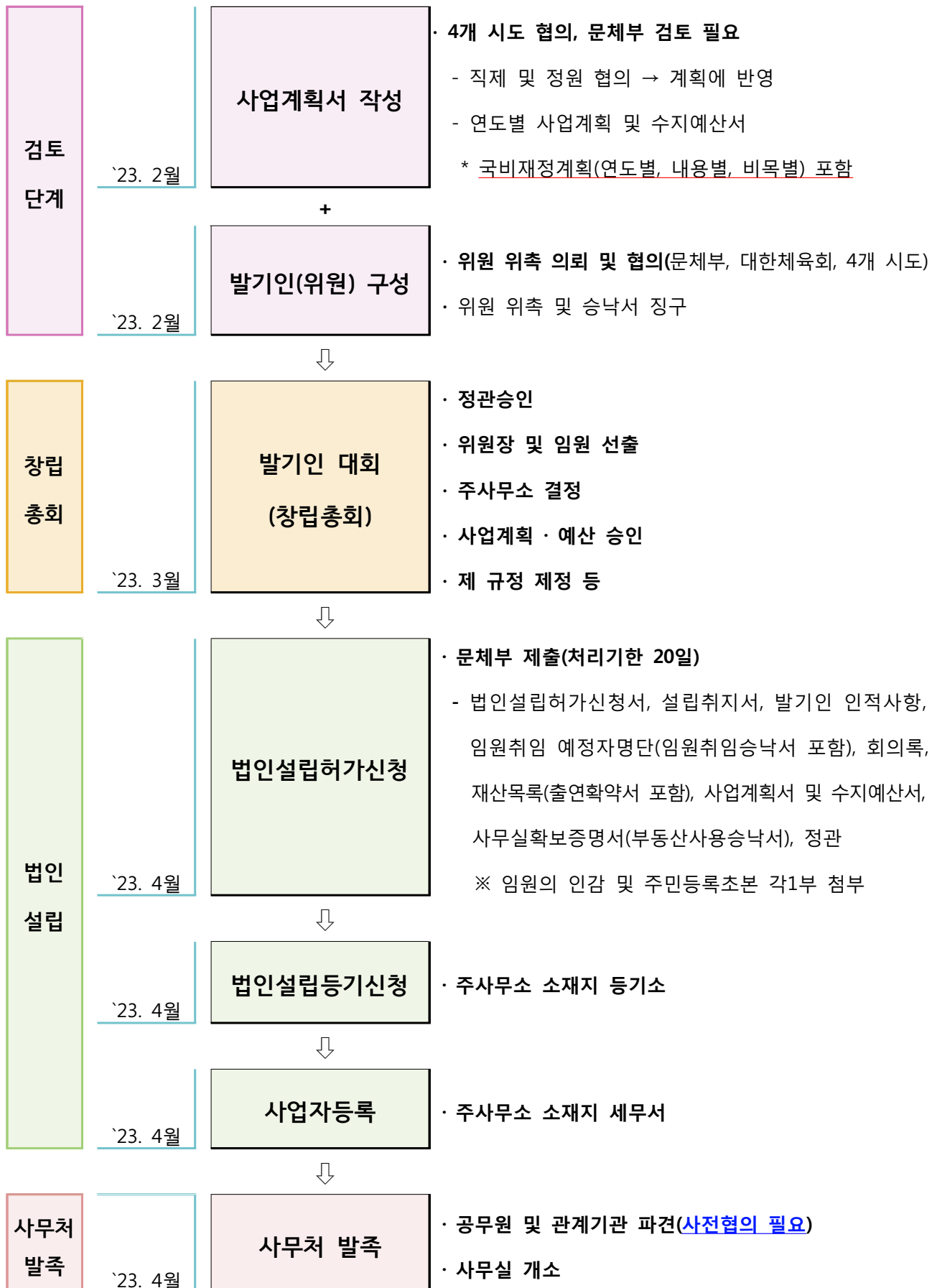
□ 3단계 조직

- 운영 기간 : 2026. 7. ~ 2027. 6.
- 직제 및 정원 : 1총장 7본부 19부 1단 1소 2담당관 63팀, 400명



참고2

조직위원회 설립 주요절차



참고3 총사업비 및 운영비 내역

□ 총 사업비

○ (소요예산) 총 5,812억원 *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자료 (단위 : 억 원, %)

| 구 분 | 계 | 국 비 | | 지방비 | | 사업수입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시 설 비 | 2,690 | 807 | 13.9% | 1,883 | 32.4% | - | - |
| 운 영 비 | 3,122 | 937 | 16.1% | 1,204 | 20.7% | 981 | 16.9% |
| 총사업비 | 5,812 | 1,744 | 30% | 3,087 | 53.1% | 981 | 16.9% |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직위원회 국비 지원, 본 대회 예산에 포함

□ 개별사업비

○ (소요예산) 8,903억 * 지자체 취합분 / 본 대회 예산 불포함 (단위 : 억 원, %)

| 구 분 | 계 | 국 비 | | 지방비 | | 비고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세종(3개) | 4,483 | 2,619 | 58.4% | 1,864 | 41.6% | 행특회계 |
| 대전(2개) | 1,848 | 200 | 10.8% | 1,648 | 89.2% | 균특회계 |
| 충북(3개) | 976 | 231 | 23.7% | 745 | 76.3% | 균특회계, 문체부 공모 |
| 충남(1개) | 1,596 | - | - | 1,596 | 100.0% | 지방이양사업 |
| 계 | 8,903 | 3,050 | 34.7% | 5,853 | 65.3% | |

□ 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 항목 | 적정금액 | 항목 | 적정금액 |
|------------|---------|---------|--------|
| 운영비 | 312,212 | - | - |
| 조직위원회 및 기획 | 37,039 | 문화행사 | 9,983 |
| 국제협력 | 6,357 | 의료 및 도핑 | 2,661 |
| 경기운영 | 10,147 | 미디어 | 26,059 |
| 인력 및 물자 | 59,231 | 의전 및 등록 | 3,183 |
| 정보통신 | 52,802 | 수송지원 | 9,749 |
| 시설관리 | 29,384 | 마케팅 홍보 | 18,525 |
| 대회 빌리지 | 34,822 | 안전 및 방역 | 7,495 |
| 숙박 및 식음료 | 2,287 | 기타 비용 | 2,488 |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본계획서 기준

참고4 종목별 경기시설

□ 경기시설 : 세종 3, 대전 5, 충남 12, 충북 13

| 구분 | 종목 | 경기장 | 위치 | 비고 |
|------------------|-------|----------------|----|-------|
| 필수 종목 (15) | 양궁 | 김수녕양궁장 | 충북 | 기존 |
| | 육상 | 세종종합경기장 | 세종 | 건설예정1 |
| | 배드민턴 | 호암체육관 | 충북 | 기존 |
| | 농구 |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M) | 충북 | 기존 |
| | | 청주체육관 | 충북 | 기존 |
| | | 충북대학교실내체육관 | 충북 | 기존 |
| | | 오창산업단지체육관 | 충북 | 건설예정2 |
| | 다이빙 | 대전용운국제수영장 | 대전 | 기존 |
| | 펜싱 | 서남부스포츠타운투기장 | 대전 | 건설예정3 |
| | 기계체조 | 오송체육관 | 충북 | 신축 |
| | 리듬체조 | 오송체육관 (중복) | 충북 | 신축 |
| | 유도 | 충주전통무예진흥시설 | 충북 | 건설예정4 |
| | 경영 | 대전용운국제수영장 (중복) | 대전 | 기존 |
| | 탁구 | 세종실내체육관 | 세종 | 건설예정5 |
| | 태권도 | 충주전통무예진흥시설(중복) | 충북 | 건설예정4 |
| | 테니스 | 천안종합운동장테니스장 | 충남 | 증축 |
| | 배구 | 천안유관순체육관(M) | 충남 | 기존 |
| | | 이순신체육관 | 충남 | 기존 |
| | | 단국대학교체육관 | 충남 | 기존 |
| | | 상명대학교체육관 | 충남 | 기존 |
| | | 남서울대학교체육관 | 충남 | 기존 |
| | 수구 | 세종실내수영장(M) | 세종 | 건설예정6 |
| | | 아산배미수영장 | 충남 | 기존 |
| 선택 종목 (3) | 축구 | 대전월드컵경기장(M) | 대전 | 기존 |
| | | 서남부스포츠타운운동장 | 대전 | 건설예정7 |
| | | 천안종합운동장 | 충남 | 기존 |
| | |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 충남 | 건설예정8 |
| | | 천안축구센터 | 충남 | 기존 |
| | | 이순신종합운동장 | 충남 | 기존 |
| | | 청주종합운동장 | 충북 | 기존 |
| | | 증평종합운동장 | 충북 | 건설예정9 |
| | 조정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 충북 | 기존 |
| | 비치발리볼 | 보령 | 충남 | 기존 |
| 합계 | | 30 (중복사용 3개) | | |

※ 기존시설 활용 19개소 / 증축 1(천안종합운동장테니스장) / 신축 1(오송체육관) / 건설예정 9개소

참고5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 추진개요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대회 유치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적기 건립이 시급

- 위 치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운3-1, 운3-2
- 총사업비 4,483억원(건립 2,619 토지 1,864) / 18만m² 규모 / '23.~'27.(5년간)
- 설치시설 주경기장(2만석),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역시설 등
- 경기종목 육상·탁구·수구·폐막식 개최 등 추진 예정

□ 주요 현안

- (타당성 재조사) 건설청의 턴키 발주 시점('23.8.)에 맞춰 타당성 재조사(KDI 또는 조세연) 통과 및 기간 단축(9→6개월 이내)이 관건
 - 이전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B/C 0.16)된 사실이 있기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절대적 노력(市 차원 홍보) 필요

▶ ('22.12.~'23.1.) 기본계획 현행화 ⇨ ('23.上.) 타당성 재조사 등 기재부 협의 ⇨ ('23.下.) 발주* ⇨ ('27.上.) 건립 ⇨ ('27.8.) 대회 개최

* '27.4월까지 건립을 위해서, '23.7~8월 설계·시공일괄(턴키) 발주 필요(건설청 공사 일정)

- (국비 확보) 市-건설청 간 사업비 분담 합의* 대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교통예산과) 이해 설득 반드시 필요

* 건립는 국비(행특회계)로,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각각 합의('18.3.)

- (기재부) 보조금법상 지자체 국비 보조(30%)가 적정하다는 의견
- (市·건설청) 행복도시법상 국가 직접 사업인 만큼, 여타 지자체와 동일 기준이 아닌 기존 분담 합의대로 건립비 국비 지원 필요

※ (여타 지자체) 국비 보조 후 직접 사업 시행 / (市) 건설청 건립 후 무상양여

참고6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안)

□ 주경기장 조감도



□ 종합체육시설 배치도(운3-1, 운3-2 구역)



▶ 운 3-1 : 110,696㎡(33,485평) ▶ 운 3-2 : 74,032㎡(22,394평)

참고7 메인선수촌 조성 지원

□ 조성방향

- (접근·편의성) 60 분 이내 이동거리 위치, 편의시설(사우나, 헬스장 등) 구비
- (효율성) 조성비용 최소화, 집합형 기존시설(계획 포함) 활용

※ (FISU 최소요구조건) 선수촌은 10,000명 이상 수용가능 규모

- ▶ 경기장 및 훈련장으로부터 60분 이내 이동거리 위치
- ▶ 침실은 1인당 최소 7㎡ 이상, 화장실 1개소당 최대 3명 사용

□ 메인 선수촌 : 세종시 5-2 생활권 내 공동주택(공공분양·임대)

- 위 치 : 세종시 합강동, 다솜리, 용호리 일원
- 조성방법 : 공동주택 분양 전 선수촌으로 활용 후 시민에게 분양·임대
- 조성시기 : **2027년 입주(2,526세대)** * FISU 기준 : 화장실 1개소당 3명 수용
- 수용인원 : **약 12,000명**
- 관련기관 : LH공사 세종본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추진일정 : **부지조성**(착공 '23.7 / 준공 '27.5), **공동주택**(착공 '24.12 / 준공 '27.6)

| 유 형 | 개발·실시계획 | | 부지조성공사 | | | | 공동주택 | | | | |
|------|---------|---------|--------|-------|--------------|-------|----------|-----------|-----------|--------|-------|
| | 착수 | 수립 | 설계 | 착공 | 토지사용 가능시기 | 준공 | 설계 공모 | 당선작 선정 | 건축 인허가 | 착공 | 준공 |
| 임대주택 | '20.1. | '20.12. | '21.12 | '23.7 | '24.10 | '27.5 | '23.7 | '23.10 | 24.6 | '24.12 | '27.6 |

※ 행복청, LH에서는 5-1생활권도 선수촌 부지로 검토중 / 조직위 출범 후 확정

□ 보조 선수촌 : 일부 종목은 해당지역 숙박시설(리조트, 연수원 등) 활용

- 2 개소(충북 충주/충남 보령), 5 종목(유도, 태권도, 배드민턴, 조정, 비치발리볼)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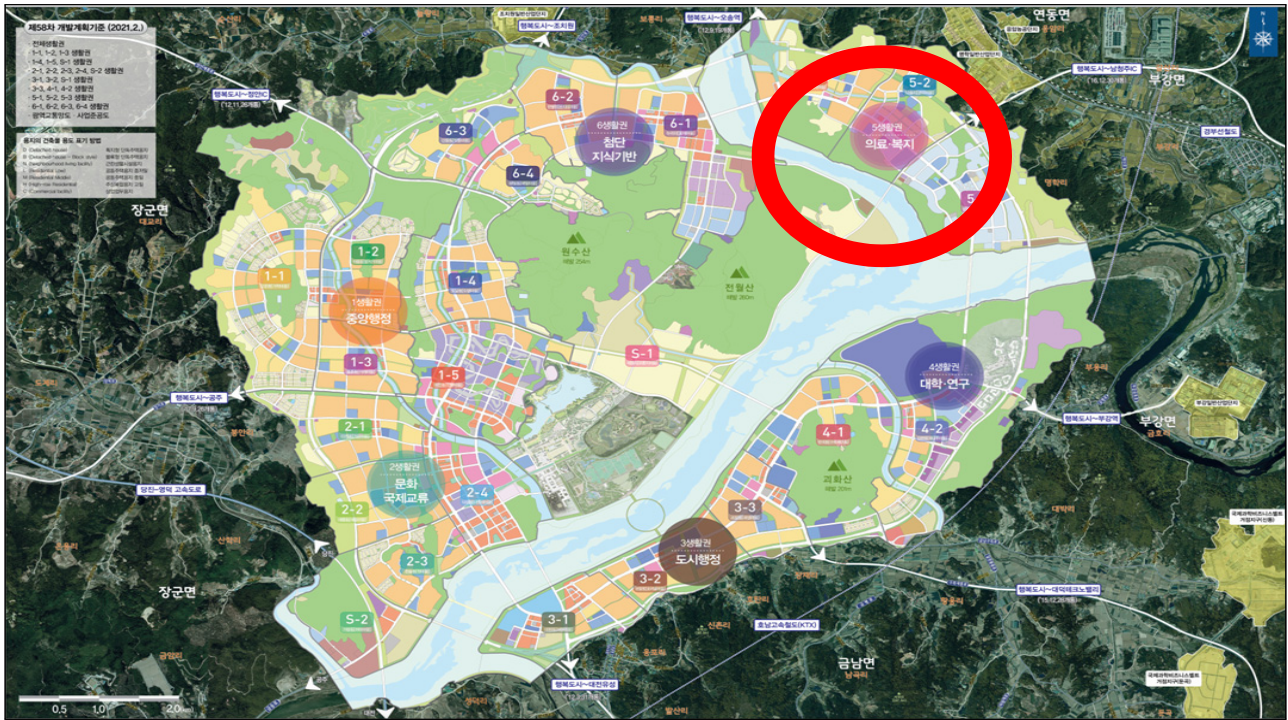
- 메인 선수촌 적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LH, 건설청) 지속 협의

* 선수촌 시설 지원 및 설비 제공을 위해 '27. 4월 공동주택 준공 목표

참고8

메인선수촌 위치도 및 공동주택 계획

□ 위치도



□ 5-2 생활권 공동주택 계획 < 내공사 제공 >

| 공급유형 | 위치 | 주택유형 | 세대수 |
|------|-----|-------------|-------|
| 공공임대 | B2 | 60㎡초과~85㎡이하 | 172 |
| | B3 | 60㎡초과~85㎡이하 | 164 |
| | L1 | 60㎡이하 | 289 |
| | L4 | 60㎡이하 | 240 |
| | M4 | 60㎡초과~85㎡이하 | 198 |
| | UR2 | 60㎡이하 | 451 |
| | S1 | 60㎡이하 | 131 |
| | S2 | 60㎡이하 | 133 |
| | - | 소계 | 1,778 |
| 공공분양 | M3 | 60㎡초과~85㎡이하 | 498 |
| | S3 | 60㎡이하 | 119 |
| | S4 | 60㎡이하 | 131 |
| | - | 소계 | 748 |
| - | - | 총계 | 2,526 |

□ 추진개요

- 대회운영 경험을 갖춘 각 분야별 전문가 및 FISU 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 효율적 준비 및 운영을 통해 대회 개최의 파급효과 극대화

□ 세부추진계획

- 충청메가시티 4 개 시·도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대회 준비와 개최 전반에 대해 지자체 간의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 1단계 (2022~2023) | 2단계 (2024~2025) | 3단계 (2026~2027) |
|--|--|--|
| 협력기반 마련 | → 개최준비를 위한 조율 | → 성공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 시도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공동 정책마련 및 의사결정 통일을 위한 제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지원 ▶ 관련 정책 개발 및 조례 제정 지원 ▶ 조직위와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회 단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조율 ▶ 지자체별 지원 정책 조율 및 업무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 대회 홍보와 붐업 등 지원 |

-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대회 운영 지원**

- 조례 제정 등 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공투자와 기업스폰서십 유치 지원,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등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

□ 향후계획

- 부서별 세부추진과제 지속 발굴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23.1.)
- U-대회 종합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23.2.)
- 조직위원회 설립('23.4) 지원 및 관계기관 예산 협의(4 개 시도 공동)

□ 6개 분야, 42개 과제, 35개 소관부서

(지속 발굴, 보완)

| 분 야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서 |
|----------------------|------------------------------|-------------------------------------|
| 대회홍보 (3) | ① 대회 홍보 지원 | 공 보 관 |
| | ② 대회 보도 지원 | 공 보 관 |
| | ③ 시민참여를 통한 홍보 및 질서운동 전개 | 자 치 행 정 과 |
| 대회지원 (12) | ④ 의전행사 종합계획 수립 | 운 영 지 원 과 |
| | ⑤ 종합안내소 및 경기장 안내소 운영 | 정 책 기 획 관 |
| | ⑥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 | 예 산 담 당 관 |
| | ⑦ 질서유지 대책본부 운영 | 청 년정책담당관 |
| | ⑧ 정보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 정 보통계담당관 |
| | ⑨ 해외 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 대 외협력담당관 |
| | ⑩ 주요 경기·행사 학생 응원단 지원 | 교 육 지 원 과 |
| | ⑪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계획 수립 | 전 략 기 획 과 |
| | ⑫ 세종엔·시티앱 활용 서포터즈 운영 지원 | 지 능 형 도 시 과 |
| | ⑬ 시티앱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등록 및 인증 지원 | 지 능 형 도 시 과 |
| | ⑭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대회 안내 | 지 능 형 도 시 과 |
| | ⑮ 선수단 환영·영접행사 추진 |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
| 시민안전 보건의료 (11) | ⑯ 경기장 주변 국가하천(금강) 환경정비 | 물 관 리 정 책 과 |
| | ⑰ 금강을 활용한 문화레저 인프라 조성 | 물 관 리 정 책 과 |
| | ⑱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요소 개선활동 | 안 전 정 책 과 자 연 재 난 과 사 회 재 난 과 |
| | ⑲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 복 지 정 책 과 |
| | ⑳ 미아보호센터 설치·운영 | 아 동 청 소 년 과 |

| 분 야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서 |
|----------------------|---------------------------|----------------------|
| 시민안전 보건의료 | ㉑ 노인과 장애인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 노 인 장 애 인 과 |
| | ㉒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 여 성 가 족 과 |
| | ㉓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 | 감 염 병 관 리 과 |
| | ㉔ 대회 식품안전관리 | 보 건 정 책 과 |
| | ㉕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보급 추진 | 보 건 정 책 과 |
| | ㉖ 의료지원 대책 수립 | 보 건 소 (보 건 의 료 과) |
| 경기시설 대회운영 (3) | ㉗ 대회 준비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 지원 | 체 육 진 흥 과 |
| | 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 체 육 진 흥 과 |
| | ㉙ 메인선수촌 조성 지원 | 체 육 진 흥 과 주 택 과 |
| 관광마케팅 물가관리 (7) | ㉚ 문화예술행사 개최 | 문 화 예 술 과 |
| | ㉛ 세종시 특화 관광상품 개발·홍보 | 관 광 진 흥 과 |
| | ㉜ 다국어 지도 및 홍보책자 발간 | 관 광 진 흥 과 |
| | ㉝ 숙박·관광 홍보 지원 | 관 광 진 흥 과 |
| | ㉞ 물가종합대책 수립 | 소 상 공 인 과 |
| | ㉟ 방문고객 편의증진 및 가격 안정화 추진 | 소 상 공 인 과 |
| | ㊱ 선수단을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 지원 | 로 컬 푸 드 과 |
| 교통·환경 (6) | ㊲ 교통종합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 운행 | 교 통 과 |
| | ㊳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불법유동광고 집중정비 | 도 시 경 관 과 |
| | ㊴ 미세먼지 감시 체계 강화 | 환 경 정 책 과 |
| | ㊵ 공중화장실 관리 종합대책 | 환 경 정 책 과 |
| | ㊶ 청소 종합대책 | 자 원 순 환 과 |
| | ㊷ 가로수 정비 종합대책 | 산 림 공 원 과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1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세종과 대전의 공동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 방안과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했다.

참여인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최원석·김영현·김재형 의원,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희 변호사 등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여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시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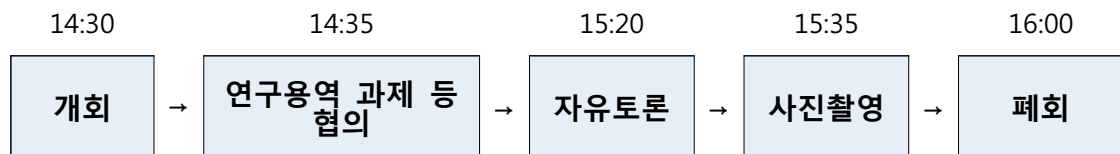
참고 3 언론보도 현황

| 언론사명 | 게재일자 | 헤드라인 기사 |
|--------|--------------|---|
| 계 | 11건 | |
| 세종의 소리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세종·대전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
| 동양일보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세종·대전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
| 아시아투데이 | 2023. 4. 12. | 세종시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
| 충북일보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U대회 세종·대전연구모임' 발족 |
| 브릿지경제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위한 연구모임 발족 |
| 충청매일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연구회 간담회 진행 |
| 프라임경제 | 2023. 4. 12. | 김현미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식 |
| 국제뉴스 | 2023. 4. 12.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위해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
| 굿모닝충청 | 2023. 4. 12. | 세종시의회, '하계U대회 성공 개최' 위해 팔 걸어 |
| 중부매일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U대회' 세종·대전 연구모임 발족 |
| 농수축산신문 | 2023. 4. 12. | 세종시의회, '2027 U-대회 성공 위한 연구모임' 발족 |

제2차 간담회 (2023. 6. 14.)

□ 회의 개요

- (일시) 2023. 6. 14.(수) 14:30-16:00
- (장소) 세종시의회 대회의실(1층)
- (참석) 8명(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김재형 의원 등 회원 7, 관계공무원 1)
- (내용) 연구용역 과업범위 및 세부과제 등 협의
- (진행순서)



□ 주요 내용

- 대전시의회 및 체육·관광 관계자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방안
- 생활체육·전문체육의 저변 확대 및 선순환 체계 구축
- 선수, 시민, 대학 등 세종·대전간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스포츠 활성화 도모
- 대회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간 갈등요소 파악 및 해소방안 마련
- 생활·전문체육 인프라 확충과 세종시 체육의 규모 및 수준 향상 필요
-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세종·대전 지역연계 방안 마련

활동사진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은 1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시의회와의 협력 방안과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에 대한 세종·대전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회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지역 간 갈등 요소 해결방안 마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저변 확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교류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의회와 함께 체육·관광 등 유관 분야 관계자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유관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3 언론보도 현황

| 언론사명 | 게재일자 | 헤드라인 기사 |
|---------|--------------|---|
| 계 | 8건 | |
| 대전인터넷신문 | 2023. 6.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2차 간담회 "개최 |
| 뉴스충청인 | 2023. 6.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
| 세계타임즈 | 2023. 6.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
| 금강투데이 | 2023. 6. 15.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
| 뉴스밴드 | 2023. 6. 15.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
| 충청매일 | 2023. 6. 15. | 2027하계세계U대회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
| 충청매일 | 2023. 6. 15. | 세종시의회 2027하계U대회 연구모임 간담회 |
| 농수축산신문 | 2023. 6.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U-대회 연구모임 2차 간담회 열어 |

대전광역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 [2023. 7. 5.]

□ 회의 개요

○ (일시) 2023. 7. 5.(수) 16:00-17:30

○ (장소) 대전시의회 소통실(3층)

○ (주최·주관)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 위원장 김진오 외 7명 / 2023. 6. ~ 2026.6.

○ (참석) 10명(세종시의원 4명*, 대전시의원 4명, 교수 2명)

* 연구모임 위원 중 의원 4명(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최원석) 참석

○ (내용)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현안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

- 좌장: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위원장)

- 주제발표(김세환 한밭대학교 교수)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경제효과와 지역상생방안’

대전시의회와의 간담회 사진 [사진출처: 뉴스프리존]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한밭대학교
김세환

발표
순서

**1.
일반현황**

1. 유니버시아드?
2. 참가 규모

**2.
유치배경**

1. 유치 목적
2. 유치 여건

**3.
기본계획**

1. 재정계획
2. 시설계획

**4.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5.
대회유산**

1. 지역적 유산
2. 국가/국제적 유산

**6.
협력방안**

1. 관심도/인지도
2. 스포츠 인프라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올림픽과
동일한 규모의 국제종합대회

- ▶ 참가국: 174개국(FISU 회원국)
- ▶ 개최 종목: 18종목(필수 15종목, 선택 3종목)
- ▶ 참가 규모: 150여 개국, 1만 5천명 이상의 선수단 참가

필수 종목: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선택 종목: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

1

유니버시아드는?

글로벌 스포츠 스타의 등용문



손연재(리듬체조)
2015광주U



황영조(마라톤)
1991웨필드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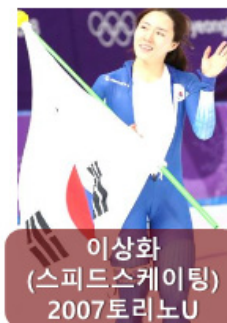
홍명보(축구)
1991웨필드U



기보배(양궁)
2015광주U



박찬호(야구)
1993버팔로U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2007토리노U

2

참가 규모

• 하계 종합대회 통계치 비교

(단위: 국, 개, 명)

| 구분 | | 유니버시아드 | 하계올림픽 | 아시안게임 |
|----------|----------|---------------------|-------------------|--------------------|
| 회원국 | | 174 | 206 | 45 |
| 종목 수 | | 18 | 30 | 36 |
| 참가 규모 | 참가규모 계 | 19,600 | 18,700 | 17,900 |
| | 임원 | 6,000 | 5,000 | 5,000 |
| | 선수 | 12,000 | 10,500 | 9,000 |
| | IF임원/VIP | 800 | 1,200 | 1,600 |
| | 기술임원 | 800 | 2,000 | 2,300 |
| 주최 | |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

3

하계종합대회 통계치 비교

| 구분 | 2015광주 하계U대회 | 2018평창 동계올림픽 | 2014인천 아시안게임 |
|------|--------------|--------------|--------------|
| 참가국 | 170개국 | 92개국 | 45개국 |
| 종목 수 | 21개 종목 | 15종목 | 36개 종목 |
| 미디어 | 세계 150여개국 | 세계 90여개국 | 아시아 30여개국 |

〈출처〉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개최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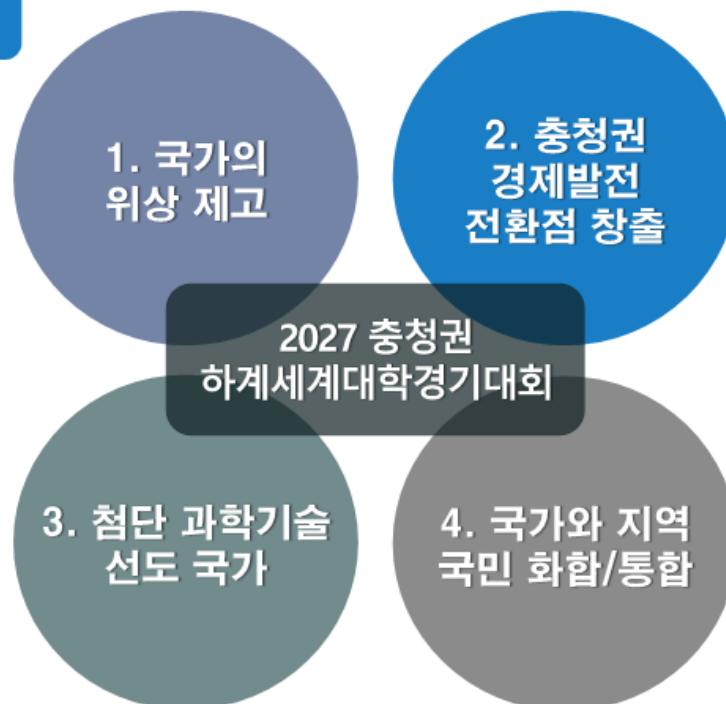
4

국내에서 개최된 사례

| | 연도 | 개최도시 | | 연도 | 개최도시 | | 연도 | 개최도시 |
|----|------|------------|----|------|-------------|----|------|-------------|
| 1 | 1959 | 이탈리아 토리노 | 12 | 1983 | 캐나다 에드먼튼 | 23 | 2005 | 터키 이즈미르 |
| 2 | 1961 | 불가리아 소피아 | 13 | 1985 | 일본 고베 | 24 | 2007 | 태국 방콕 |
| 3 | 1963 | 브라질 포트알레그레 | 14 | 1987 |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 25 | 2009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
| 4 | 1965 | 헝가리 부다페스트 | 15 | 1989 | 서독 뒤스부르크 | 26 | 2011 | 중국 선전 |
| 5 | 1967 | 일본 도쿄 | 16 | 1991 | 영국 셰필드 | 27 | 2013 | 러시아 카단 |
| 6 | 1970 | 이탈리아 토리노 | 17 | 1993 | 미국 버펄로 | 28 | 2015 | 대한민국 광주 |
| 7 | 1973 | 소련 모스크바 | 18 | 1995 | 일본 후쿠오카 | 29 | 2017 | 대만 타이베이 |
| 8 | 1975 | 이탈리아 로마 | 19 | 1997 | 이탈리아 시칠리아 | 30 | 2019 | 이탈리아 나폴리 |
| 9 | 1977 | 불가리아 소피아 | 20 | 1999 | 스페인 팔마 | 31 | 2021 | 중국 청두 |
| 10 | 1979 | 멕시코 멕시코시티 | 21 | 2001 | 중국 베이징 | 32 | 2023 |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
| 11 | 1981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 22 | 2003 | 대한민국 대구 | 33 | 2025 | 독일 라인-루르 |

5

유치 목적



6

유치 여건

경쟁력

공동개최로 경제성 확보

▶ 재정 부담 감소

대회 개최 인프라 구축

▶ 충청권 강점 활용

시도민의 지지기반

▶ 유치 찬성 86.5%

기여도

국가 균형 발전 도모

▶ 도시/스포츠 시설 개선

국제대회 개최 역량 제고

▶ 개최 역량 유지/강화

지역 발전 기여

▶ 충청권 홍보 및 교류

7

재정 계획

시설비
3,427억

+

운영비
3,804억

=

7,231억

단위: 백만원, %

국비: 216,942(30%)
지방비: 399,682(55.3%)
자체 수입: 106,513(14.7%)
합계: 723,137(100%)

←

재원
마련

8

시설 계획

30개 경기장

기존 시설 최대 활용
신규 경기장 1개

사후 활용 방안:

1. 기존 경기장: 생활체육 시설로 사용
2. 신규 시설: 스포츠인프라 구축/사후 활용
3.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9

기대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
2조 2,789억원

- ▶ 생산유발효과: 1조6,452억원
- ▶ 소득유발효과: 3,635억원
- ▶ 부가가치유발효과: 6,351억원
- ▶ 간접세유발효과: 851억원
- ▶ 취업유발효과: 1만499명
- ▶ 고용유발효과: 7천244명

1.
 시도별
 브랜딩
 강화

2.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3.
 충청권
 경제의
 새 도약

10

**기대효과:
중장기적 기대효과**

**충청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산업/교육/관광 등)

**충청권의
젊은 동력**
(인구감소/지역이미지 제고)

**충청권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접근성/활성화 제고)

11

대회 유산

**지역적, 국가적
스포츠 유산**

- ▶ 유형: 지역의 스포츠인프라 구축
- ▶ 무형: 글로벌 스포츠 인재육성
- ▶ 무형: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국제적
스포츠 유산**

- ▶ 무형: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강화
- ▶ 무형: 세계 속 한국 대학스포츠의 발전
- ▶ 무형: 글로벌 e-sports 시장 선점

**지역의 유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 ▶ 유형: 충청 통합 경제권으로 시장규모 확대
- ▶ 무형: 지역의 공동체 의식 제고
- ▶ 무형: 충청권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무형: 지역의 세계화->글로벌 비즈니스

12

협력 방안

1. 대회의 인지도/관심도 제고
2. 낙후되고 부족한 시설과 인프라 개선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 수립
4. e스포츠 육성과 기존 스포츠와의 결합
5.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발전 기회

연구용역 수행 [2023. 8. 18.~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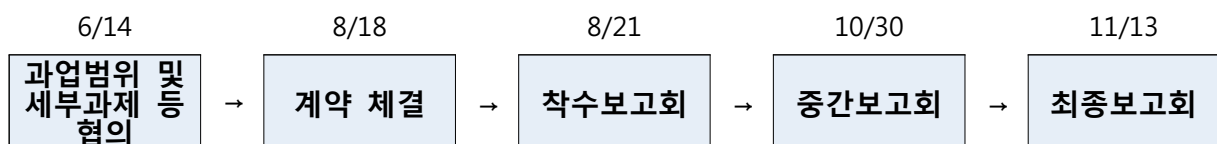
□ 추진 개요

- (용역명)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3. 8. 18. ~ 2023. 11. 15.(3개월)
- (추진배경) 충청권 4개 시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확고한 상생 협력방안 정립 필요
 -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 하는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 성장 전략 구축
 - 국제종합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숙박, 교통, 안전,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에서 세종·대전 간 발전방안 모색

□ 과업 내용

- (과업내용)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전략 마련
 - 국제대회 개최 효과의 선순환으로 체육 저변 확대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관련 지역 간 협력 방안 모색
- (용역비) 금19,000천원

□ 추진 과정



참고 1 연구용역 과업내용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 충청권 4개 시·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확고한 상생 협력방안 정립 필요
-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 성장 전략 구축
- 국제종합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숙박, 교통, 안전,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에서 세종·대전 간 발전방안 모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23. 8. ~ '23. 11.)

4. 용역비 : 19,000천원 (전액 시비)

5. 과업수행기관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II 과업 내용

1.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전략 마련

-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과 대전의 협력 가능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분석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
- 세종과 대전지역의 공동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분야 등 협력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및 협력 방안 구축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마련 및 제시

2. 대회의 개최 효과의 선순환으로 체육 저변 확대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 효과가 선순환되어 전문체육은 물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저변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 모델 제안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기반으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세종과 대전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방안 제안

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관련 지역 간 협력 방안 모색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이 연구에서는 세종과 대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제시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지역 간 상생 통합·화합 전략 제안

III 과업 일정

1. 과업 추진 일정표

○ 용역 기간 : '23. 8. ~ '23. 11. (3개월)

| 내용 \ 기간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1. 대회 관련 현황 자료 수집 | | | | |
| 2. 용역 착수보고 | (착수) | | | |
| 3. 용역 수행 | (용 | 역 | 수 | 행) |
| 4. 용역 중간보고 | | | (중간) | |
| 5. 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 | (최종) |

2. 추진 일정

○ 착수보고

- (개최 시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전후
- (보고서 제출) 10부(책자) ※ 보고회용 PT 별도 작성

○ 중간보고

- (개최 시기) 계약기간 2/3 이내 세종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 (보고서 제출) 10부(책자) ※ 보고회용 PT 별도 작성

○ 최종보고

- (개최 시기) 과업만료일 20일 전까지
- (보고서 제출) 10부(책자) ※ 보고회용 PT 별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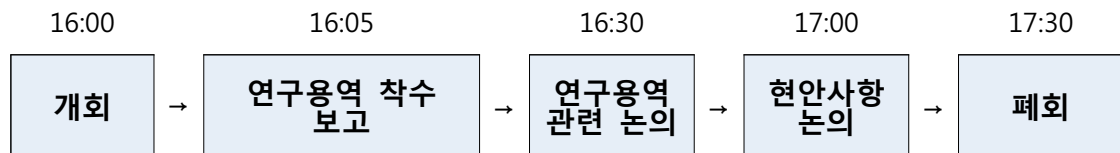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시기) 계약만료일 이전
- (보고서 제출) 20부(책자), 3개(CD/USB)

제3차 간담회 [2023. 8. 21.]

□ 회의 개요

- (일시) 2023. 8. 21.(월) 16:00-17:30
- (장소)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 (참석) 회원 8명(김현미, 최원석, 김재형 의원 등 회원 7명, 공동연구원 1명)
- (내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현안사항 논의
- (진행순서)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방향 논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청취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 촉박한 연구용역 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용역 자료 등 활용
 - 세종·대전 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까지 상생 협력방안 마련 검토
 - 도시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환경분석 및 문헌자료·사례분석 필요
 -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경제효과, 시민참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예산확보 등 정상적 대회 개최 위한 문체부, 조직위의 정책적 지원 필요
- (토론회 추진방안 논의)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추진방법, 일정 등 논의
 - 10월중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병행하여 개최하며, 세종·대전지역의 의원, 전문가, 관련공무원, 학생, 선수 등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 수렴

활동사진



연구용역
착수보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상생 협력 방안

한밭대학교
김세환

발표
순서

1.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중점
3. 연구기간/연구기관
4. 연구참여인력

2.
연구 수행

1. 연구 절차 및 방법
2. 세부수행절차

3.
추진계획

1. 연구 일정
2. 기간 별 내용

4.
기대효과

1. 상생협력 기초자료
2. 지속가능 발전전략

I.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 ▶ 충청권 최초 국제스포츠이벤트->면밀한 검토/구체적 계획
- ▶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4개 시도의 유기적 협력 방안 필요
-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이 중요

연구목적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의 상생 협력 방안 제시

1

I. 연구개요

연구중점



2

I. 연구개요

연구기간/연구기관

- ▶ 기간: 2023.8. ~ 2023.11.(3개월)
- ▶ 기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인력

- ▶ 책임연구원 1명+공동연구원 2명=총 3명
- 본 연구용역을 이해하고 전문성과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

3

I. 연구개요

연구자 정보

| 구분 | 성명 | 최종학력 | 경력 |
|-------|-----|-----------------|---|
| 책임연구원 | 김세환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 충남대 스포츠융복합창업육성사업단 공동연구원 - 대전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 대전하나시티즌 여성관람객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아파트 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안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노년기 대표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
| 공동연구원 | 황성하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충남대학교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원장 - 한국체육교육학회 상임이사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이사 |
| 공동연구원 | 장지명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단 시설기획부 팀장 -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강사 - (사)대전하나스포츠클럽 전무이사 -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

4

I. 연구개요

연구기간/연구기관

- ▶ 기간: 2023.8. ~ 2023.11.(3개월)
- ▶ 기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인력

- ▶ 책임연구원 1명+공동연구원 2명=총 3명
- 본 연구용역을 이해하고 전문성과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

3

I. 연구개요

연구자 정보

| 구분 | 성명 | 최종학력 | 경력 |
|-------|-----|-----------------|---|
| 책임연구원 | 김세환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 충남대 스포츠융복합창업육성사업단 공동연구원 - 대전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 대전하나시티즌 여성관람객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아파트 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안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노년기 대표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
| 공동연구원 | 황성하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충남대학교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원장 - 한국체육교육학회 상임이사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이사 |
| 공동연구원 | 장지명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단 시설기획부 팀장 -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강사 - (사)대전하나스포츠클럽 전무이사 -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

4

Ⅱ. 연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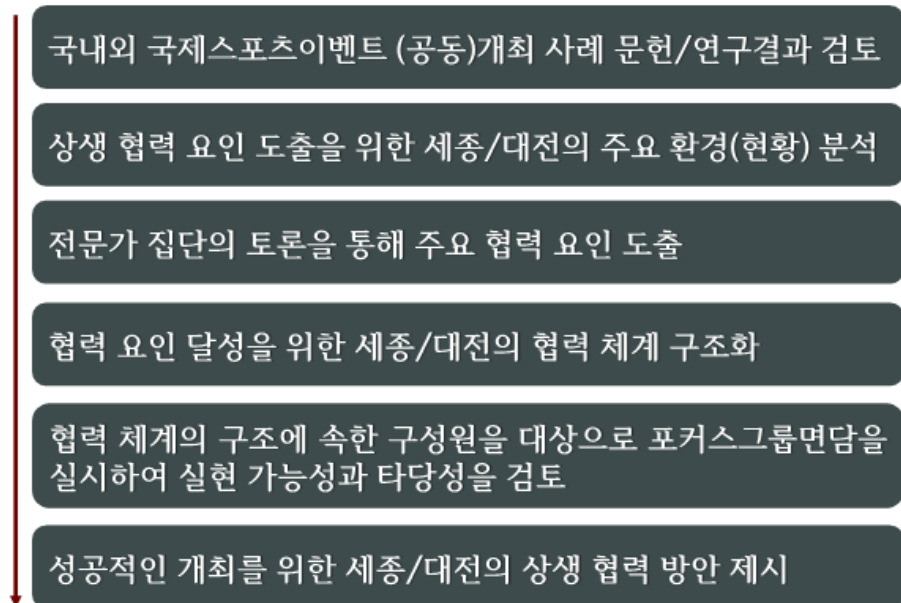
연구의 흐름



5

Ⅱ. 연구수행

연구절차



6

Ⅱ. 연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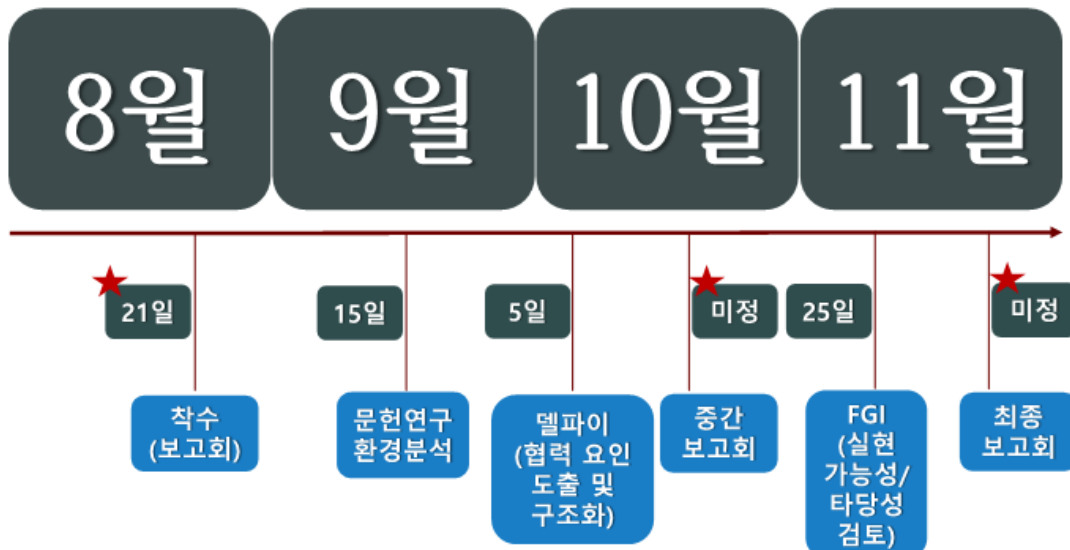
세부수행절차

| 순서 | 절 | 내용 |
|----|-------------|--|
| 1 | 문헌연구 | - 국내·외 하계세계대학경기 개최 사례 분석 -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공동개최 사례 분석 - 공식백서, 언론자료, 연구논문 등 문헌자료 분석 |
| 2 | 환경분석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세종, 대전 시민들의 인지도, 관심도, 참여 의견 등을 조사 - 설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거주지,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사전 협의에서 도출된 협력 가능 요인(도시 브랜드, 스포츠 인프라, 체육 선순환 구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 시도 주요 현황에 대한 환경분석 |
| 3 | 협력 요인 도출 | - 문헌연구, 설문조사,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결과 종합 - 전문가 집단의 토론 등 델파이기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주요 협력 요인 도출 |
| 4 | 협력체계 구조화 | - 도출된 협력 요인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기관(시청, 의회, 교육청, 체육회 등) 간의 거버넌스 구조화 |
| 5 | 실현가능성 검토 | - 주요 기관(시청, 의회, 교육청, 체육회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담(FGI)을 실시하여 협력 요인과 체계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분석 |
| 6 | 최종 협력 방안 제시 |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과 대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

7

Ⅲ. 연구수행

연구추진일정/기간 별 내용



8

IV.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 ▶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향후 충청권 4개 시도 협력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스포츠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등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레거시를 발굴하여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도출

9

질의/응답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 이하 연구모임)’은 21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최원석, 김재형 의원과 김세환, 황성하 교수, 정민희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한 후 앞으로 수행될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대전의 상생 협력방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문헌자료 및 환경분석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실무진 인터뷰,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입을 모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종 대전 간의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4개 시도의 확고한 상생 협력 방안 정립 필요성도 제언했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종·대전 간의 실현 가능한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종·대전 지역 체육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오는 10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모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고 3 언론보도 현황

| 언론사명 | 게재일자 | 헤드라인 기사 |
|--------|--------------|---|
| 계 | 11건 | |
| 뉴스충청인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연구용역 착수 |
| 뉴스인뉴스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
| 세종방송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위한 연구용역 착수 |
| 세종연기일보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
| 미디어이슈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 |
| 세계뉴스통신 | 2023. 8. 22.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 |
| 대전투데이 | 2023. 8. 22. |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
| 충청뉴스 | 2023. 8. 22.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
| 농수축산 | 2023. 8. 22. | 세종시의회 2027 U-대회 연구모임, 3차간담회 가져 |
| 대전투데이 | 2023. 8. 22.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
| 로컬투데이 | 2023. 8. 22. | 세종시의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 |

제4차 간담회 및 토론회 (2023. 10. 30.)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0. 30.(월) 14:00-16:30

○ (장소) 세종시의회 대회의실

○ (참석) 30여명*

* 연구모임 회원, 토론자, 대전시의회 의원,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 (내용) 성공적인 개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진행순서)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중간 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청취와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 대회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필요
-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종·대전의 생활체육 통합 모델 구축
- 세종·대전의 프로스포츠 구단유치 및 향유 문화 환경 개선 필요

○ (토론회)

-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 및 시민의 스포츠 참여 필요
- 시의회, 조직위, 체육회, 공공기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적인 관계 기관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 필요
- 지역 간 협업과 협력으로 대회 유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의 다각화 및 다채로운 관련 프로그램 발굴 필요

활동사진



참고 1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2023년
연구용역 중간보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 방안

한밭대학교
김세환

발표 순서 ————— 30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1. 대회 개요 2. 국내개최사례

과업 개요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과업수행절차

현황 분석

1. 대회 인식 2. 세종·대전 생활체육 현황 3. 프로스포츠 연고지 현황

협력 과제

1. 대회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2.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1) 대회 명칭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대회 주최 및 주관

- 주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 주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3) 대회 일정

- 2027년 7월 3일(토) ~ 2027년 7월 14일(수), 총 12일

4) 대회 개최 장소 및 회차

- 장소: 대한민국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 회차: 제33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5) 경기 종목

- 필수 종목 15종목, 선택 종목 3종목

6) 참가 예정 국가 및 인원

- FISU 회원국 174개국 중 150여 개국 참가 예정
- 참가 예정 인원: 1만 5천 명 내외(선수단, 임원, 미디어 등)

1) 1997년 무주·전주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1997년 01월 24일 ~ 02월 02일

2) 2003년 대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03년 08월 21일 ~ 08월 31일

3) 2015년 광주세계대학경기대회
2015년 7월 03일 ~ 07월 14일

→ 성공 평가: 저비용 고효율

충청권 최초 국제스포츠이벤트->면밀한 검토/구체적 계획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의 유기적 협력 방안 필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이 중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과 대전의 시민들이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필요

대회 유산이 세종과 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혁신으로
이어져 두 도시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

본 과업의 목적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의 상생 협력 방안 제시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도출
2. 스포츠를 통한 상호교류 및 연대 증진 방안 도출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 전략 수립

→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 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
· 홍보 컨셉 및 스토리 발굴 · 홍보 플랫폼 다양화 ·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발

2) 세종과 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혁신

→ 세종과 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현황 파악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 세종/대전 생활체육 인프라 혁신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도출
· 세종/대전 프로스포츠 균형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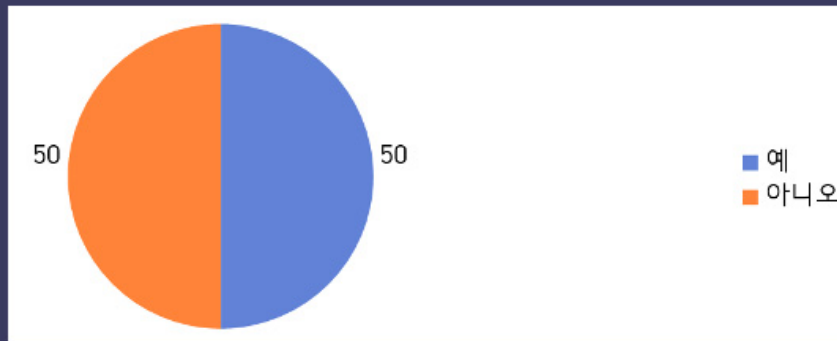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세종과 대전 시민 총 468명
-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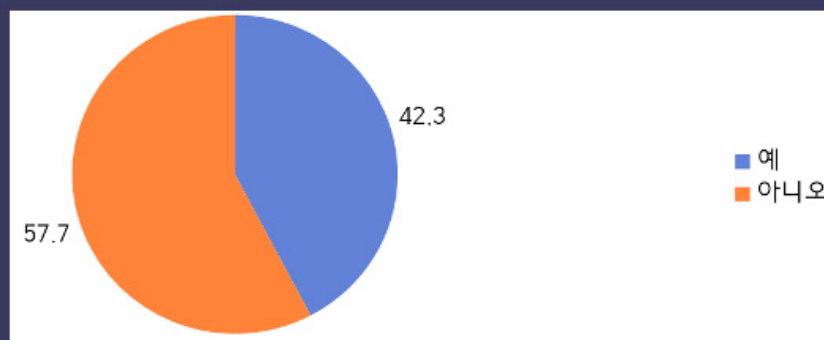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Q. 당신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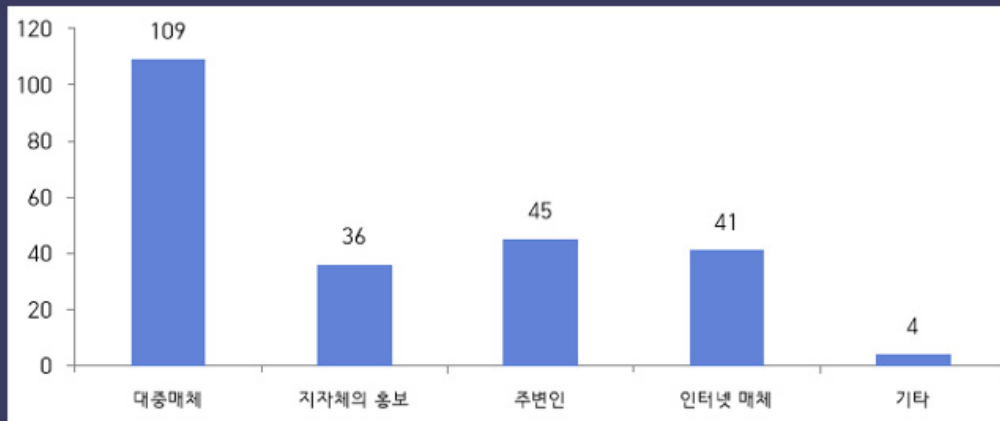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Q. 당신은 2027년 충청권에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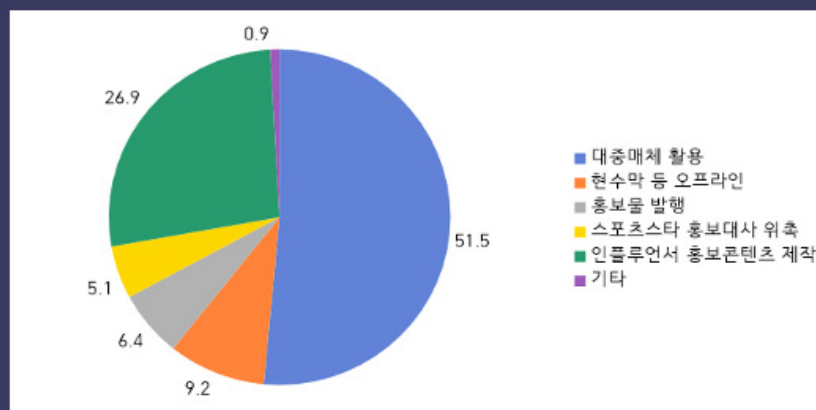
Q. 어떤 경로를 통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알게 되셨습니까?



10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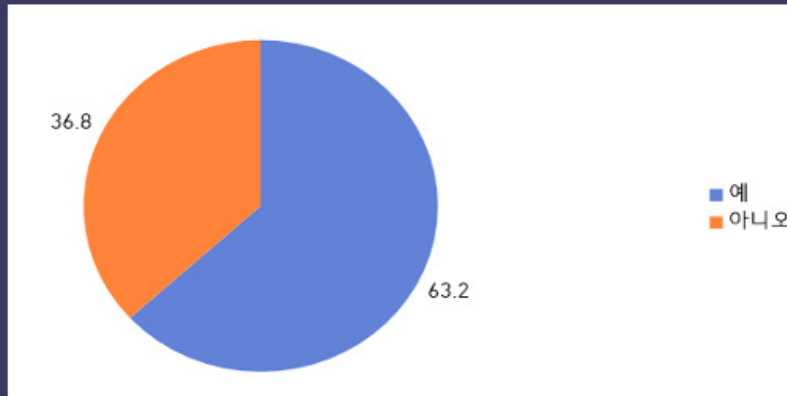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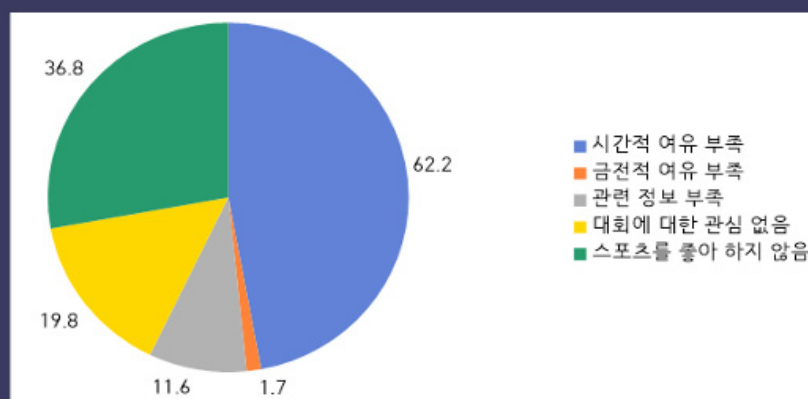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경기관람, 자원봉사, 홍보 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2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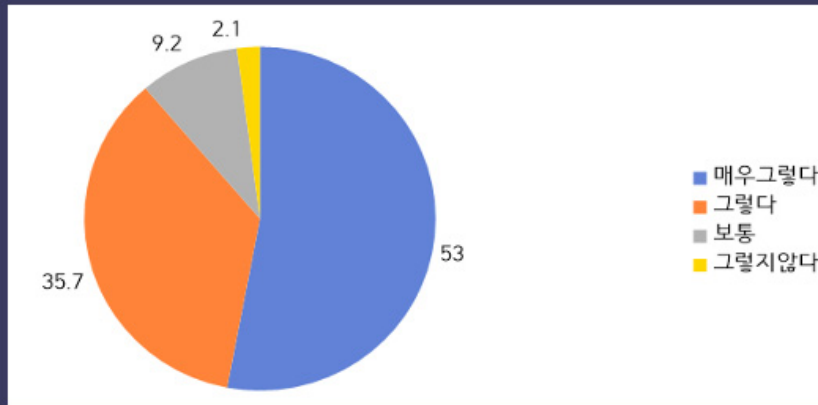
Q. 당신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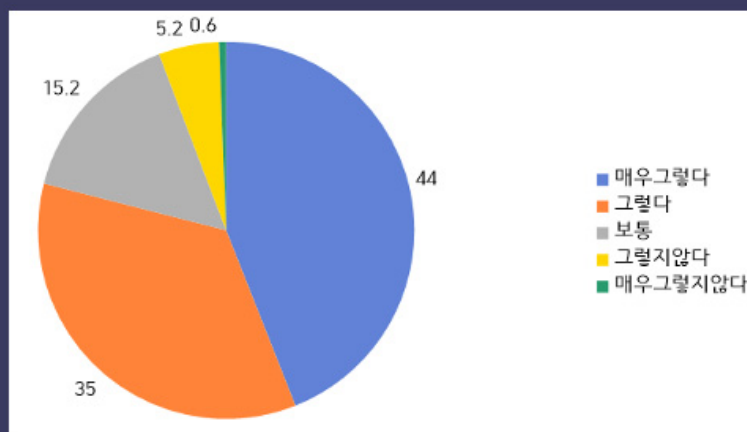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우리 지역 스포츠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14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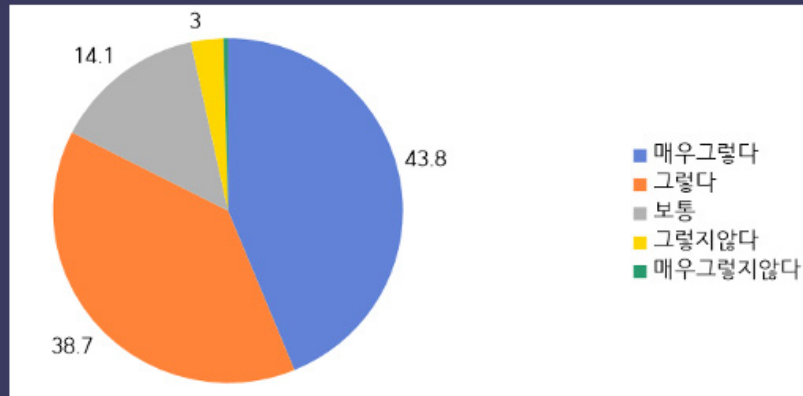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우리 지역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15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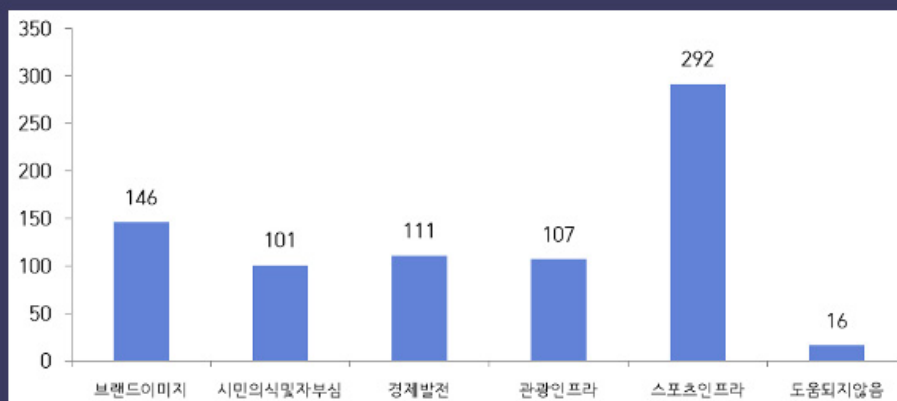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우리 지역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16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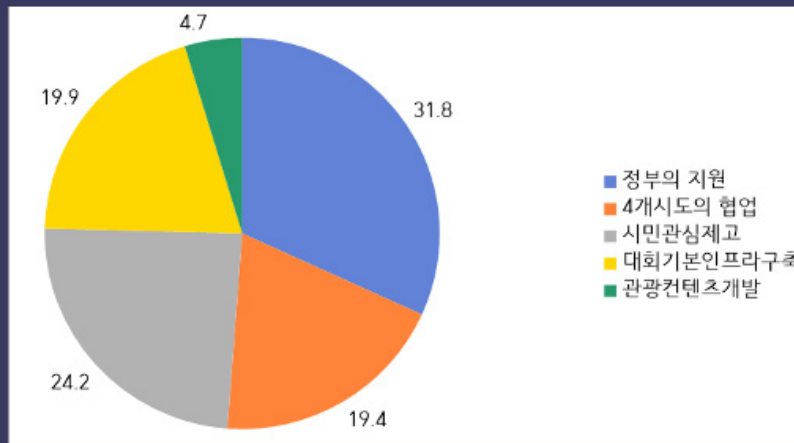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우리 지역 어떤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17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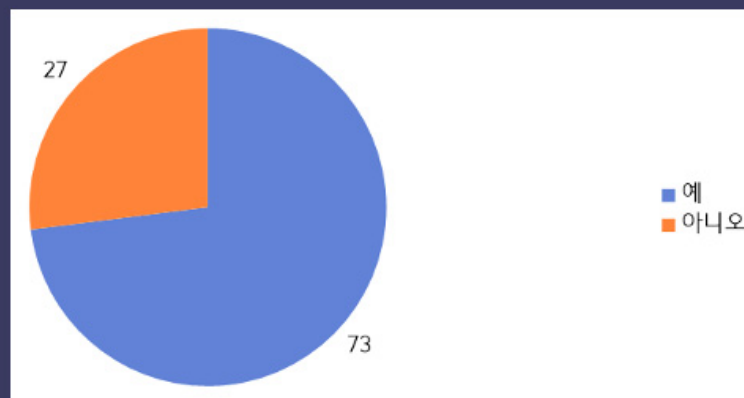
Q. 당신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8

4) 세종·대전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Q. 당신은 현재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9

4) 세종·대전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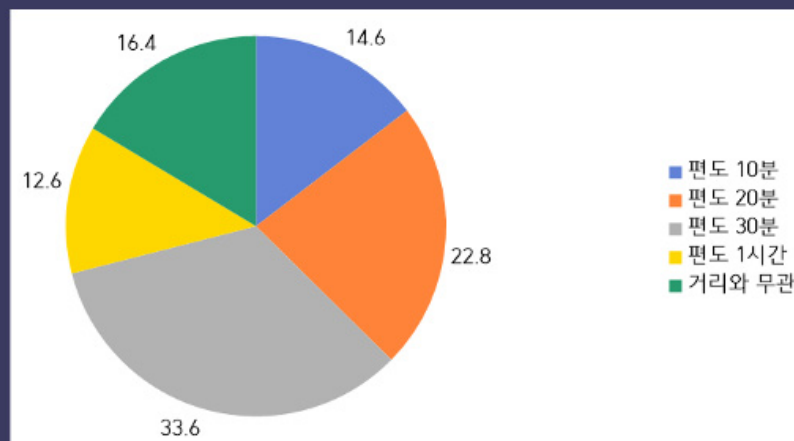
Q. 당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무엇입니까?



20

4) 세종·대전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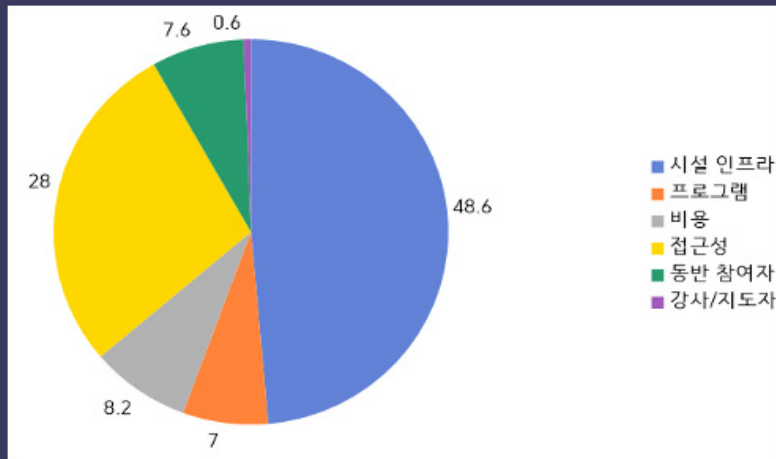
Q. 당신은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이동(도보, 차량 등)에 최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21

4) 세종·대전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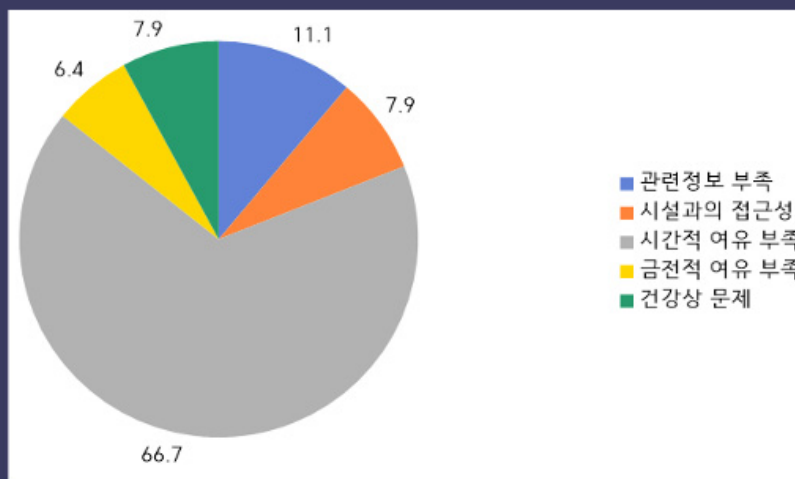
Q. 당신은 생활체육 참여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4) 세종·대전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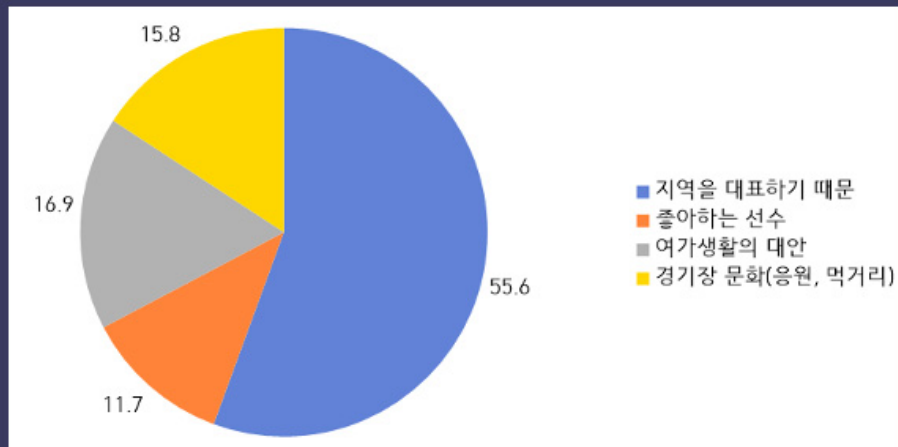
Q. 당신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5) 세종·대전 시민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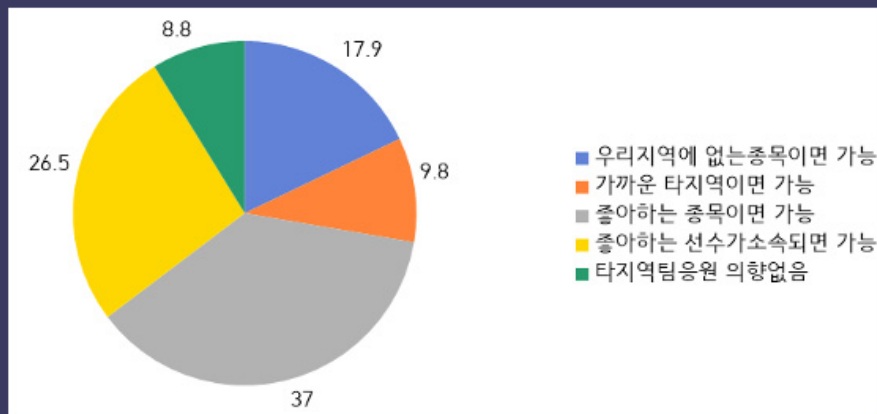
Q. 당신이 프로스포츠 구단을 응원하고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

5) 세종·대전 시민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식

Q. 당신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연고 프로팀을 응원하고 관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6

세종·대전 생활체육 대회 현황

- 1) 걷기: 세종 1개, 대전 2개
- 2) 자전거: 세종 1개, 대전 2개
- 3) 등산: 세종 1개, 대전 1개
- 4) 배드민턴: 세종 1개, 대전 3개
- 5) 탁구: 세종 2개, 대전 2개
- 6) 테니스: 세종 1개, 대전 2개
- 7) 축구: 세종 2개, 대전 4개
- 8) 풋살: 세종 0개, 대전 2개
- 9) 야구: 세종 0개, 대전 1개
- 10) 배구: 세종 1개, 대전 1개
- 11) 농구: 세종 1개, 대전 2개
- 12) 골프(파크): 세종 2개, 대전 1개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걷기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주요코스 | 구간거리 | 관리주체 |
|-----------|----------------------|-------|------------|------------------|
| 조치원 시민운동장 | 조치원읍 신흥리 370-2 일원 | 400트랙 | 100,930(m)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주요코스 | 구간거리 | 관리주체 |
|-----|--------|----------------------|------|---------|
| 갑천변 | 서구 만년동 | 엑스포시민광장 ↔ 유림공원 | 7km | 하천관리사무소 |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자전거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주요코스 | 구간거리 | 관리주체 |
|-----------------|------------|--------|------|------|
| 원수산공원 BMX경기장 | 세종동 659-30 | 25,400 | 1면 | LH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주요코스 | 구간거리 | 관리주체 |
|--------|---------|--------|-------|----------|
| 월평사이클장 | 서구 갈마동 | 벨로드롬 | 333m | 대전시설관리공단 |
| 갑천변 | 유성구 탑립동 | 하천변 도로 | 1.7km | 유성구청 |

29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배드민턴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관람석 (수용인원) |
|------------------|--------------|----------------|--------|-----|---------------|
| 세종시민체육관 | 조치원읍 대첩로 116 | 시설관리사업소 | 실내 | 9면 | 없음 |
| 부강 배드민턴장 | 부강면 청연로 6 | 시설관리사업소 | 실내 | 3면 | |
| 조치원(죽림) 배드민턴장 | 조치원읍 죽림리 243 | 시설관리사업소 | 실내 | 4면 |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관람석 (수용인원) |
|-----------|---------|----------------|--------|------|---------------|
| 한밭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18코트 | 2,000명 |
| 충무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12코트 | 6,000명 |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유성구 신성동 | 유성종합스포츠클럽 | 실내 | 10코트 | 300명 |
| 도솔다목적체육관 | 서구 도마동 | 서구체육회 | 실내 | 10코트 | 300명 |
| 대덕문화체육관 | 대덕구 목상동 | 대덕스포츠클럽 | 실내 | 6코트 | 350명 |

30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탁구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관람석 (수용인원) |
|--------------------|-----------------|---------------------------------------|--------|-----|---------------|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 연서면 월하전로 301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내 | 20대 | 없음 |
| 시민체육관 보조체육관 | 조치원읍 대접로11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내 | 20대 | |
| 1-2생활권 이룸 스포츠센터 | 보듬3로 12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KOLON SPOREX유텍 | 실내 | 20대 |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관람석 (수용인원) |
|-----------|---------|----------------|--------|-----|---------------|
| 한밭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20대 | 2,000명 |
| 충무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20대 | 6,000명 |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유성구 신성동 | 유성종합스포츠클럽 | 실내 | 20대 | 300명 |
| 도솔다목적체육관 | 서구 도마동 | 서구체육회 | 실내 | 15대 | 300명 |

31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테니스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
| 소정 테니스장 | 소정면 소정리 476-4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3면 |
|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 |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5면 |
| 금남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 금남면 용포중앙1길 54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3면 |
| 전의저리장 테니스장 | 전의면 등교리 3-2 63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1면 |
| 전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 전의면 읍내항골1길 63 | 전의면 | 실외 | 3면 |
| 수정복원센터A 테니스장 | 금송로 612 (가람동 900) | 삼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실외 | 9면 |
| 수정복원센터B 테니스장 | 대평동 646 | 삼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실외 | 3면 |
| 다정동저수지 테니스장 | 다정동 64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3면 |
| 중앙공원1단계 테니스장 | 중앙공원 7-60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실외 | 10면 |
| 조치원 시민운동장 연현우 테니스장 | 조치원읍 신흥리 370-2 일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실외 | 4면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실내외 구분 | 코트수 |
|-----------|---------|----------------|--------|-----|
| 충남대테니스장 | 유성구 궁동 | 충남대학교 | 실외 | 16면 |
| 한밭대테니스장 | 유성구 덕영동 | 한밭대학교 | 실외 | 6면 |
| 오람대테니스장 | 중구 복수동 | 개인사업자 | 실내 | 3면 |
| 올미기공원테니스장 | 대덕구 신일동 | 대덕스포츠클럽 | 실외 | 3면 |
| 충강실내테니스장 | 유성구 충강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4면 |

32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축구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²) |
|--------------------|-----------------------|------------------|-------|-------------------------|
| 조치원체육공원 축구장 | 조치원읍 죽림리 245-2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8,492 |
| 전외생원체육공원 축구장 | 전외면 읍내항삼1길 63 | 전외면 | 1면 | 12,300 |
| 아침달근린공원 축구장 | 한솔동 1246 (아침달근린공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8,300 |
| 부강생원체육공원 축구장 | 부강면 부강금호로 17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0,000 |
| 금강1단계 스포츠공원 축구장 | 세종동 551-71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6,336 |
| 다정동 저류지 축구장 | 다정동 64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3,700 |
| 수심목원센터A 축구장 | 금송로 612 (가람동 960)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1면 | 8,140 |
| 중앙공원1단계 축구장 | 중앙공원로 6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16,482 |
| 금강2단계 스포츠공원 축구장 | 세종동 28-88 일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8,214 |
| 6·4생원체육공원 축구장 | 해밀동 산1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7,140 |
| 조치원 시민운동장 축구장 | 조치원읍 신흥리 370-2 일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11,236 |
| 미호천 체육공원 축구장 | 연동면 예암리 로3번지 일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21,607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²) |
|----------|----------|----------------|-------|-------------------------|
| 안영체육장 | 중구 안영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5면 | 48,303 |
| 덕암체육장 | 대덕구 대덕대로 | 하남읍체육구단 | 2면 | 23,414 |
| 관저체육장 | 서구 관저동 | 개인사업자 | 1면 | 7,800 |
| 죽내림체육장 | 서구 도안동 | 서구체육회 | 1면 | 8,020 |
| 월드컵보조경기장 | 유성구 노은동 | 하남읍체육구단 | 1면 | 10,660 |
| 용머리공원수구장 | 대덕구 신일동 | 대덕스포츠클럽 | 1면 | 9,926 |
| 연구단지체육장 | 유성구 신성동 | 대덕특자센터 | 1면 | 11,636 |

33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풋살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²) |
|------------------------|----------------------------------|------------------|-------|-------------------------|
| 솔독근린공원 풋살장 | 고운동 1412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54 |
| 아름스포츠센터 풋살경기장 | 보동3로 12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760 |
| 오가나동근린공원 제1풋살장 | 아름동 804(충남대병원 쪽) 비촌3길 35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94 |
| 오가나동근린공원 제2풋살장 | 아름동 804(관리사무실 쪽) 다남1로 22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170 |
| 소정저리장 풋살경기장 | 소정면 대곡리 545-11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753 |
| 연서저리장 풋살경기장 | 연기면 보룡리 393-13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4,560 |
| 금강1단계스포츠공 원풋살경기장 | 세종동 551-26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2,250 |
| 도관동 근린공원 풋살 경기장 | 다정동 947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942 |
| 가람동 저류지 풋살 경기장 | 가람동 965 (저류지5-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442 |
| 가람동 저류지 풋살경기장(어린이용) | 가람동 965 (저류지5-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416 |
| 연동보강처리장 풋살장 | 연동면 평학리 959-1 (태산로 71-113)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075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²) |
|---------|---------|----------------|-------|-------------------------|
| 지수체육공원 | 대덕구 신일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4면 | 4,200 |
| 의삼풋살장 | 유성구 의삼동 | 유성스포츠클럽 | 2면 | 1,780 |
| 충남대 풋살장 | 유성구 궁동 | 충남대학교 | 3면 | 2,600 |

34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야구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
|--------------------|------------------|------------------|-------|-----------|
| 한글공원 S야구장 | 세종동 26-118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0,000 |
| 세종제1야구장 | 연서면 월하리 218-2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9,800 |
| 월하리 리틀야구장 | 연서면 월하리 198-1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4,600 |
| 부강생활체육공원 야구장 | 부강면 부강금호로 17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2,000 |
| 금강1단계 스포츠공원 야구장 | 세종동 551-77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11,126 |
| 다정동저류지 리틀야구장 | 다정동 64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300 |
| 중앙공원1단계 리틀야구장 | 중앙공원로 60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1면 | 4,150 |
| 중앙공원1단계 야구장 | 중앙공원로 60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1면 | 10,132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
|-----------|---------|------------|-------|-----------|
| 한화생명이글스파크 | 중구 부사동 | 한화이글스 | 1면 | 24,000 |
| 하수처리장 | 유성구 문지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2면 | 13,600 |
| 갑천고수부지 | 서구 둔산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2면 | 13,457 |
| 중촌근린공원 | 중구 중촌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1면 | 6,572 |

35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배구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 | 관람석 (수용인원) |
|----|----|----------------|-------|--------|---------------|
| 없음 | | | | |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 (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 | 관람석 (수용인원) |
|-----------|---------|----------------|-------|--------|---------------|
| 한밭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2면 | 2,000명 |
| 충무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실내 | 2면 | 6,000명 |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유성구 신성동 | 유성종합스포츠클럽 | 실내 | 2면 | 300명 |

36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농구

○ 세종특별자치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
|-----------------|-------------------|---------------|-------|-----------|
| 남남생활체육공원 농구장 | 금남면 용포리 28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00 |
| 조천면 농구장 | 조치원읍 평리 12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1,216 |
| 연희생활체육공원 농구장 | 연희면 중내항동1길 63 | 연희면 | 1면 | 683 |
| 한솔동 체육지 농구장 | 한솔동 1249 (여곡지2-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380 |
| 오가남동 생활체육공원 | 이천동 804(송남생활원 쪽)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740 |
| 제천동근린공원 농구장 | 충현동 67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721 |
| 기림동근린공원 농구장 | 노남동 405 (1-4 계류지)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418 |
| 모리근린공원 농구장 | 노남동 643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1,508 |
| 제천동근린공원 농구장 | 충현동 67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726 |
| 세성동근린공원 농구장 | 보합동 766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05 |
| 모빛 문화공원 농구장 | 대평동 957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573 |
| 별파동근린공원 농구장 | 대평동 908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660 |
| 별파동근린공원 농구장 | 대평동 953-3 일원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362 |
| 유동근린공원 농구장 | 고운동 1412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461 |
| 중앙공원1단계 농구장 | 중앙공원로 60 |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2면 | 1,210 |
| 6-4생활권 체육공원 농구장 | 해밀동 산1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2면 | 1,189 |
| 향동근린공원 농구장 | 고운동 1709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면 | 632 |
| 모개동근린공원 농구장 | 만곡동 산100 | LH | 1면 | 652 |
| 솔마루수변공원 농구장 | 모감동 700-15 | LH | 1면 | 758 |

○ 대전광역시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관리주체) | 경기장 수 | 경기장 면적(m) | 면적비 (수목인원) |
|---------|---------|------------|-------|-----------|------------|
| 한밭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광역시공민관 | 실내 | 2면 | 2,000명 |
| 충무체육관 | 중구 부사동 | 대전광역시공민관 | 실내 | 2면 | 6,000명 |
| 유성충무체육관 | 유성구 천성동 | 유성구청(스포츠) | 실내 | 2면 | 300명 |

37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골프(파크골프)

○ 세종특별자치시

| 구분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관리주체) | 경기장 코스개요 |
|----|--------------------|-----------------|----------------|----------|
| 골프 | 세종필드 | 세종시 정안 세종로 1569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구소 | 18홀 |
| 파크 | 오가남동근린공원 파크골프장 | 아름동 804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9홀 |
| | 부여동근린공원 파크골프장 | 가람동 765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9홀 |
| | 부강생활체육공원 마레트-파크골프장 | 부강면 금호리 823-5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14홀 |
| | 조천면 파크골프장 | 조치원읍 평리120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 9홀 |
| | 중앙공원 1단계 파크골프장 | 중앙공원로 60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9홀 |
| | 대평동 파크골프장 | 대평동 646 | LH | 9홀 |
| | 조치원 청춘공원 파크골프장 | 조치원읍 천산리 산 2-47 | 산림공원과 | 9홀 |

○ 대전광역시

| 구분 | 명칭 | 위치 | 소유기관(관리주체) | 경기장 코스개요 |
|----|----------|---------|------------|----------|
| 파크 | 갑천파크골프장 | 유성구 탑립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18홀 2코스 |
| 파크 | 유등천파크골프장 | 서구 만년동 | 대전시설관리공단 | 18홀 1코스 |

38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현황

| 시도 | 프로야구 | 프로축구 | 남자농구 | 여자농구 | 남자배구 | 여자배구 | 계 |
|----|------|------|------|------|------|------|----|
| 서울 | 3 | 2 | 2 | - | 1 | 1 | 9 |
| 부산 | 1 | 1 | 1 | 1 | - | - | 4 |
| 대구 | 1 | 1 | 1 | - | - | - | 3 |
| 인천 | 1 | 1 | - | 1 | 1 | 1 | 5 |
| 광주 | 1 | 1 | - | - | - | 1 | 3 |
| 대전 | 1 | 1 | | | 1 | 1 | 4 |
| 울산 | - | 1 | 1 | - | - | - | 2 |
| 세종 | | | | | | | 0 |
| 경기 | 1 | 7 | 3 | 2 | 3 | 2 | 18 |
| 강원 | - | 1 | 1 | - | - | - | 2 |
| 충북 | - | 1 | - | 1 | - | - | 2 |
| 충남 | - | 2 | - | 1 | 1 | - | 4 |
| 전북 | - | 1 | - | - | - | - | 1 |
| 전남 | - | 1 | - | - | - | - | 1 |
| 경북 | - | 2 | - | - | - | 1 | 3 |
| 경남 | 1 | 1 | 1 | - | - | - | 3 |
| 제주 | - | 1 | - | - | - | - | 1 |
| 계 | 10 | 25 | 10 | 6 | 7 | 7 | 65 |

홍보 컨셉 및 스토리 발굴

단순 홍보보다 국제스포츠이벤트가 지닌 가치 홍보
→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신호탄 역할



대회 홍보 마스터플랜 구축

- 연차별 홍보전략 수립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 시도별 홍보전략 수립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다양화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플랫폼 활용
→ 세대별 매체 활용 빈도를 기반으로 홍보 전략 구상



효과적인 홍보 플랫폼 구축

- 매체별 달성 목표 설정
- 홍보 효과 측정 체계 구축
- 시도별 공공 홍보자산 통합 운영

Pre-Universiade 개최

대회 분위기 조성 및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 간 화합
→ 대회 홍보 및 스포츠 교류 정례화를 통한 지역 통합 의미



대회 홍보 및 지역간 화합을 위한 스포츠 교류

- Pre-Universiad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
- Pre-Universiad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 대회 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협력
과제

2.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혁신

생활체육 인프라 통합

1.
생활체육
통합 플랫폼
구축

2.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2.
세종·대전
생활체육
시설 공유

→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종·대전의 생활체육 통합 모델 구축

43

질의/응답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
토 론 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부일정

| 소요시간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14:00~14:10(10') | 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김현미 연구모임 대표의원)- 축사(박란희 제1 부의장)- 기념촬영(내빈 및 발제·토론자) | | | | | | | | | | | | |
| 14:10~14:40(30') |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용역 중간보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세환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토론회 발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Sports Literacy적 사고를 중심으로-<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 | | | | | | | | | | | |
| 14:40~15:40(60') |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김현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 <table><tr><td>김재형</td><td>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td></tr><tr><td>김진오</td><td>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td></tr><tr><td>최원석</td><td>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td></tr><tr><td>방병웅</td><td>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장</td></tr><tr><td>유성연</td><td>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td></tr><tr><td>최대현</td><td>대전광역시 체육회 본부장</td></tr></table> | 김재형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김진오 |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원석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장 | 유성연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최대현 | 대전광역시 체육회 본부장 |
| 김재형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 | | | | | | | | | | | |
| 김진오 |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최원석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 | | | | | | | | | | | | | |
| 방병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장 | | | | | | | | | | | | | |
| 유성연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 | | | | | | | | | | | |
| 최대현 | 대전광역시 체육회 본부장 | | | | | | | | | | | | | |
| 15:40~16:00(20') | 질의·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참여자 | | | | | | | | | | | | |
| 16: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회 | | | | | | | | | | | | |

목 차

개 회 사

김 현 미(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

축 사

박 란 희(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 부의장)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

토론회 (좌장) 김현미 대표의원

【주제발표】

- 1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 대회) - Sports Literacy적 사고를 중심으로 -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토 론】

- 1 김재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2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 3 최원석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
- 4 방병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장
- 5 유성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6 최대현 대전광역시 체육회 본부장

축사

박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 부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박란희입니다.

먼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토론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연구모임을 주관해주신 김현미 대표의원님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아주신 김세환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발제를 맡아 주신 추종호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의 사전 준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4대 글로벌 메카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대회 이후 세종·대전이 상생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개막식과 축구, 펜싱, 수영의 3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고 세종시에서는 육상, 탁구, 수구 3개 종목의 경기와 폐회식을 개최하는 등

두 도시가 충청권 최초 국제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맡아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세종과 대전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세종·대전 간 화합과 공동의 목표달성,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역 상생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전의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 요인을 도출하여, 전세계에 세종과 대전을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접근 중 스포츠이벤트 유치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제3차 스포츠 산업 중장기발전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전략으로 하여 스포츠 산업 분야를 육성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가 사회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하계올림픽 대회,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영암 F1 대회,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 ‘스포츠 그랜드 슬램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은 2024년 강원 유스 올림픽대회와 2036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메가 이벤트에서 유례가 없었던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는 기대와 우려, 그리고 시너지 창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메가 이벤트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메가 이벤트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기장을 포함한 시설물 건설, 관광객의 편의 시설과 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당 지역 방문하는 관광객의 직접 효과(direct effects), 관광객의 직접지출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의 비즈니스 사회의 거래를 통해 상승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그리고 관광객들의

직접지출 때문에 증가하는 급여가 전체 소비 활동의 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유발효과(induced effects)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최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개최도시 및 국가의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파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효과도 함께 이루어진다(B, Y, Kim & J, Seo & H, G, Kim & B, C, Lee, 2015). 제시된 바와 같이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올림픽을 먼저 개최했던 일본의 경우 도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김은혜, 2016) 경기장, 선수촌 등 도시기반 건설을 촉진하고 국가의 재창출 수단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등의 인프라 확충과 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이다(배민규, 2016).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스포츠이벤트의 개최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염두승, 2016). 결국,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지역 개발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시사되었던 긍정적 차원의 내용과 다르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을 소개한 연구도 있다. 그 연구는 메가 이벤트 개최 후 그간 이용되었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 활용할 방법적 접근과 개최도시가 감당해야 할 무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개최되었던 모든 스포츠이벤트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된 시설물들의 사후 용도 활용문제와 유희시설로 바뀌어 기회손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함종석, 2016; 최종필, 2019, 재인용). 일찍이 정희준(2008)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을 위해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선택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위험부담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일시적 단기 경기 부양 효과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외의 존재는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유치와 개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최소한 위험요소(risk)를 줄일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자는 스포츠 리터러시(sports literacy)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리터러시는 사전적 의미로 문해력, 문자로 된 기록을 읽고, 거기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표현된다. 즉, 문맹 탈출로 간주되었던 리터러시를 인문학적 사고를 접목한 스포츠 리터러시로 재해석해보자는 것이다.

스포츠 리터러시(sports literacy)는 운동을 잘하고, 잘 알 수 있으며, 잘 느낄 수 있는 자질로서 한 개인이 스포츠에 관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시적, 심정적 자질과 능력을 종합하는 개념이다(최의창, 2022). 다시 말해,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 소양(運動 素養) 또는, 운동 향유력(運動 享有力)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스포츠를 잘하고,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이다. 최의창(2022)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포츠 컴피턴시”(sport competency)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동 기량 또는 운동수행력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부르기, 그리기, 만들기, 모으기, 나누기, 느끼기, 셈하기, 생각하기, 사랑하기 등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즐기기에는 크게 “하는 것으로 즐기기”(能享有), “아는 것으로 느끼기”(智享有), “느끼는 것으로 즐기기”(心享有)로 나눌 수 있다. 각자의 즐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이 필요하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능·지·심 향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능지심 소양은 또한 능지심향유를 통해서 개발된다. 운동향유를 통해서 운동 소양이 길러지고 소양으로 더 나은 향유를 하게 되는 피비우스 적 연관성으로 스포츠 리터러시는 만들어진다.

다시 정리하자면 스포츠 리터러시를 구성하고 있는 능소양은 운동을 신체적으로 잘 수행해서 기능이 뛰어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자질이나 능력으로 해석되며, 지소양은 운동에 대한 지식적 내용을 잘 아는 것과 활용하여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나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고, 끝으로 심소양은 운동에 대한 열정, 흥미, 애정 등으로 운동에 호감을 느끼고 좋아

하는 마음가짐의 자질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스포츠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의 3대 리터러시 중 하나가 되었다. 3대 리터러시는 문자 소양인 리터러시(literacy), 숫자 소양인 뉴 머러시(numeracy), 그리고 운동 소양인 스포러시(sporacy)다. 리터러시와 뉴머러시가 없거나 부족한 이들을 각각 문맹과 숫자맹 이라고 부른다. 운동 소양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이는 운동맹(運動盲)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이다. 운동 소양은 문화 소양의 하나로 운동맹은 결국 문화맹(文化盲)이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하나의 문화 자본으로 되어 스포츠 리터러시를 많이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삶의 질과 양 모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의 질은 어떤 문화를 얼마나 향유 하는 가에 많이 의존한다. 하지만, 우리의 스포츠 리터러시 수준은 아직 운동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문적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지역 상생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있어 스포츠 리터러시 접근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요

1. 대회 개요

1) 명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구)유니버시아드대회, WUG(World University Games) / 2023년 대회부터 명칭 변경

2) 기간: 2027. 8월 중, 12일 간(예정) ※ 2년마다 홀수 해 개최

3) 개최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4) 주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5) 주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6) 대회 규모: 150개국 15,000여 명(선수단 1만, 임원·미디어 등 5천)

7) 개최 종목: 18개 종목(필수종목 15개, 선택 종목 3개)

| 구 분 | 종목 수 | 개최 종목 |
|-------|------|---|
| 필수종목 | 15 |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
| 선택 종목 | 3 |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 |

8) 투입비용: 5,812억원(국비 1,744 / 지방비 3,087(4개 시도) / 대회수입 981)

<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요 >

- **(대회성격)**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당 초 명칭인 Universiade는 대학 올림픽의 합성어(University + Olympiade))
- **(참가자격)**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 **(대회이념)**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교육, 문화 발전추구
- **(대회역사)** 1959년 이태리 토리노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제28회 광주 개최
- **(주최/주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최 / 하계·동계 각 2년 주기
- **(개최종목)** 15개의 정식종목과 개최국 선택 종목으로 개최
- **(대회규모)** 150여 개국 15,000여 명

대회 규모 비교

| 항목 | 유니버시아드(2017 대회 기준) | 아시안게임(2018 대회 기준) |
|-------|--------------------------|---------------------|
| 참 가 국 | 170여 개국 (전 세계) | 45개국 (한·중·일 등 아시아권) |
| 참가자 수 | 18개 종목 12,000~15,000명 내외 | 40종목 11,000명 내외 |
| 방송 시간 | 6,590시간 | 2,400시간 |
| 시청자 수 | 1억4천만 명 시청 | 8천만 명 시청 |
| 시청 시간 | 50만 시간 (스트리밍 포함) | 16만 시간 (추정) |
| 시청 지역 | 유럽을 중심으로 미주 등 전 세계 | 아시아 |

2. 대회 주요 시설계획

◇ 신규 건설 최소화, 기존 경기시설 리모델링으로 최대한 활용, 대회 종료 후 경기장의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소 비용 조성

- 1) 경기장: 4개 시도, 총 30개소(대전 4, 세종 3, 충북 9, 충남 5)
- 2) 선수촌: 메인 선수촌(신축 아파트 선임대 / 세종 5-1 生) + 보조 선수촌*

* 제2 선수촌(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제3 선수촌(대전 한화 콘도미니엄)

| 구분 | 종목 | 소요 | 경기일 | 경기시설 | | | 위치 | 비고 |
|------------------|------|----|---------------|------|--------------------|--------|----|------|
| | | | | 시설번호 | 시설명 | 관람석 | | |
| 필수 종목 (15) | 양궁 | 1 | 5 | 01 | 김수녕양궁장 | 128 | 충북 | 기존 |
| | 육상 | 1 | 6 | 02 | 세종종합경기장 | 25,000 | 세종 | 건설예정 |
| | 배드민턴 | 1 | 7-9 | 03 | 호암체육관 | 990 | 충북 | 기존 |
| | 농구 | 4 | 남자.10 여자.9 | 04 |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M) | 4,484 | 충북 | 기존 |
| | | | | 05 | 청주체육관 | 4,183 | 충북 | 기존 |
| | | | | 06 | 충북대학교실내체육관 | 881 | 충북 | 기존 |
| | | | | 07 | 오창산업단지체육관 | 1,500 | 충북 | 건설예정 |
| | | | | 08 | 대전용운국제수영장 | 3,003 | 대전 | 기존 |
| | 다이빙 | 1 | 8 | 08 | 대전용운국제수영장 | 3,003 | 대전 | 기존 |
| | 펜싱 | 1 | 6 | 09 | 서남부스포츠타운투기장 | 4,000 | 대전 | 건설예정 |
| | 기계체조 | 1 | 5 | 10 | 청주학생시민복합문화체육시설 | 7,000 | 충북 | 신축1 |
| | 리듬체조 | 1 | 3 | | 청주학생시민복합문화체육시설(충북) | 7,000 | 충북 | 신축1 |
| | 유도 | 1 | 4 | 11 | 충주전통무예진흥시설 | 3,000 | 충북 | 건설예정 |
| | 경영 | 1 | 7-8 | 08 | 대전용운국제수영장 (충북) | 3,003 | 대전 | 기존 |
| | 탁구 | 1 | 8 | 12 | 세종실내체육관 | 4,000 | 세종 | 건설예정 |
| | 태권도 | 1 | 7 | 11 | 충주전통무예진흥시설(충북) | 3,000 | 충북 | 건설예정 |
| | 테니스 | 1 | 9 | 13 | 천안종합운동장테니스장 | 3,000 | 충남 | 충북7 |

| | | | | | | | | |
|-----------------|-----|----|----------------|------------|-------------|--------|----|------|
| | 배구 | 5 | 남자.11 여자.9 | 14 | 천안유관순체육관(M) | 5,482 | 충남 | 기존 |
| | | | | 15 | 이순신체육관 | 3,218 | 충남 | 기존 |
| | | | | 16 | 단국대학교체육관 | 1,430 | 충남 | 기존 |
| | | | | 17 | 상명대학교체육관 | 2,400 | 충남 | 기존 |
| | | | | 18 | 남서울대학교체육관 | 3,000 | 충남 | 기존 |
| | 수구 | 2 | 남자.13 여자.12 | 19 | 세종실내수영장(M) | 3,000 | 세종 | 건설예정 |
| | | | | 20 | 아산배미수영장 | 2,003 | 충남 | 기존 |
| | 축구 | 8 | 남자.12 여자.12 | 21 | 대전월드컵경기장(M) | 40,903 | 대전 | 기존 |
| | | | | 22 | 서남부스포츠타운운동장 | 70,000 | 대전 | 건설예정 |
| | | | | 23 | 천안종합운동장 | 26,000 | 충남 | 기존 |
| | | | | 24 |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 1,000 | 충남 | 건설예정 |
| | | | | 25 | 천안축구센터 | 2,881 | 충남 | 기존 |
| | | | | 26 | 이순신종합운동장 | 17,789 | 충남 | 기존 |
| | | | | 27 | 청주종합운동장 | 17,608 | 충북 | 기존 |
| | | | | 28 | 증평종합운동장 | 5,000 | 충북 | 건설예정 |
| 선택 종목 (3) | 조정 | 1 | 3 | 29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 1,000 | 충북 | 기존 |
| | 비치볼 | 1 | 5 | 30 | 보령비치발리볼경기장 | 0 | 충남 | 기존 |
| | 합계 | 33 | | 30 중복사용 3개 | | | | |

3. 대회 숙박·수송·교통

- 1) 숙박시설: 4만 명 수용 / 충청권 관광숙박업(87개소), 연수원(24개소)
 - (호텔업) 63개소, 객실 5,146실, 수용인원 10,292명(1실 2인 이용)
 - (휴양 콘도업) 24개소, 객실 4,770실, 수용인원 19,080명(1실 4인 이용)
 - (연수원) 24개소, 수용인원 11,503명
- 2) 수송·교통: 중부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와 철도 등 旣 구축

| | | |
|----|--|---------------------------------|
| 도로 |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등 | |
| 철도 | 경부·호남선 고속철도(KTX, SRT), 경부·호남선 일반철도, 충북선, 장항선 등 | KTX 역 5개 보유 |
| 항공 | 청주국제공항 | 거점항공사(에어로 케이) 출범 → 아시아 관문 공항 |

- 개최지역 내 주요 시설과 교통시설을 잇는 ‘충청 U 교통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회 지역 내 이동을 최적화, 대회운영에 적극 활용
- (공항) 인천국제공항(주공항), 청주국제공항(보조공항)

4. 대회 안전·의료시설

- 1) 안전: 화재와 시설 침입, 범죄, 기술적 위험, 교통사고, 자연재해, 테러 등 대회 중 안전사고 분석·검토 후 계획 수립(관계기관 협력)
- 2) 의료: 경기장 의무실, 선수촌 진료소, 지정병원 운영 구축, 모든 경기

장·시설에서 지정병원까지 40분 이내 이송체계 구축

- 3) 도핑: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협업,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에 따른 엄격한 도핑관리 시행

5. 교육·문화 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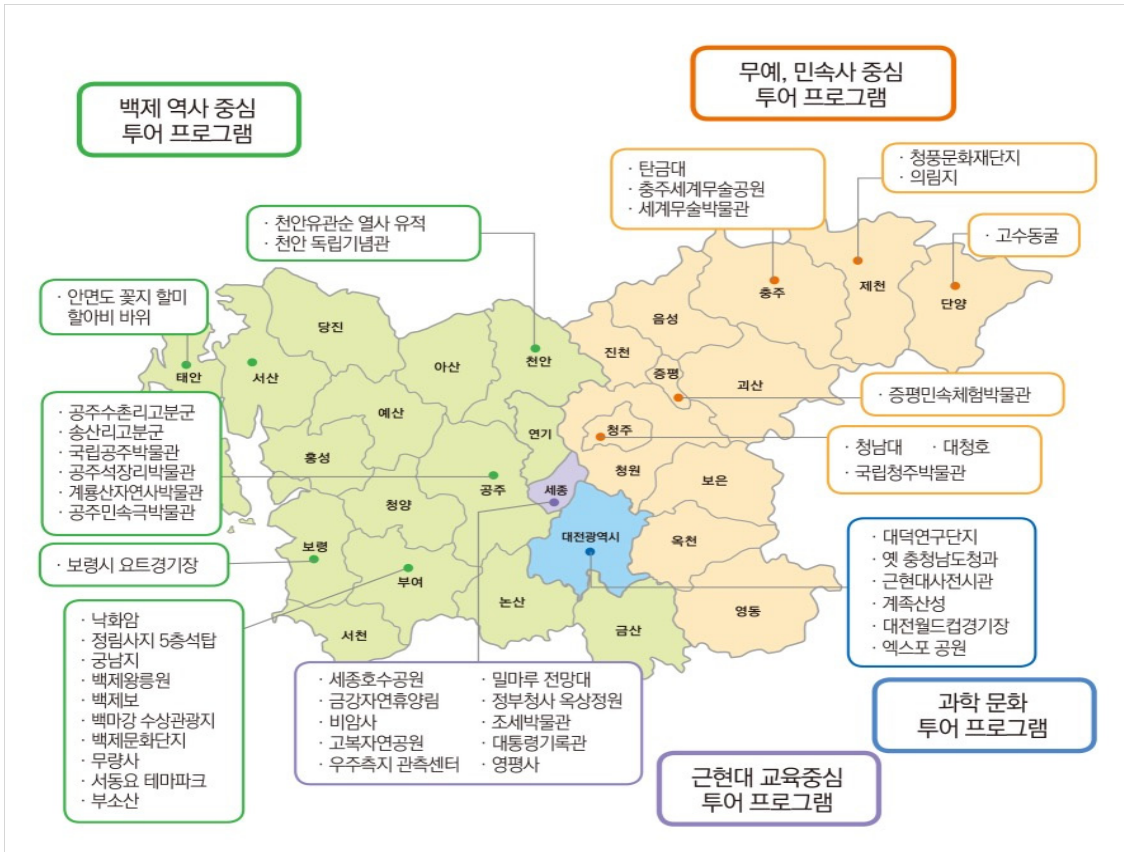
- 1) 유스 스포츠 포럼: 청소년의 미래 스포츠 목표에 대한 포럼 기획 및 운영, 글로벌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활용 / 60개국 500여 명
- 2) 세계 청소년 스포츠 캠프: 지역 대학과 협약을 통해 세계 청소년에게 스포츠 교육 캠프 제공 / 세계 각국 NUSF 추천 청소년 400명
- 3) 학술대회: 전 세계 스포츠과학자를 초청하여 대회 지속가능성 논의
- 4) 친환경 에너지 세이프 투어: 경기장을 친환경적으로 설비(증축 및 보수)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5) 충청기업 재능기부: 생명과학·통신 전자 기술 과학 분야 기업의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산업의 연관성 교육 세미나 개최
- 6) 충청 시민 큐레이터: 충청 시민으로 퇴직교사와 자원 시민으로 구성하고 충청의 자연, 역사, 문화 가이드 프로그램의 개발
- 7) U대회 기념 연합축제: FISU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성공 축제로 개최 하여 충청 지역 대학 청년들의 열정-끼 발산의 장 마련
- 8)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대회 개최 전·후
 - 충청지역 4개 시도 주요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 대상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 특성화 체험행사 제작 및 시행

Ⅲ. 대한민국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개최 현황

1. 역사적인 대륙선수권대회 개최(1960년대)

1960년대에는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 연식 정구대회, 아시아야구

〈문화 레거시 프로그램 특성화 구성〉



선수권대회,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 아시아 태평양팀 골프선수권대회 등 처음으로 대륙 단위의 선수권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1>과 같다.

표 1. 196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제2회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 1960 | 서울 | 4개국 | 아시아 축구연맹 |
| 제4회 아시아 연식정구 대회 | 1962 | 서울 | 3개국 | 아시아 정구연맹 |
| 제5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 1963 | 서울 | 4개국 | 아시아 야구연맹 |
| 제1회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 1965 | 서울 | 5개국 | 아시안 농구연맹 |
| 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 | 1967 | 서울 | 11개국 | 아시안 농구연맹 |

첫째, 태동기인 1960~70년대는 직접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그 기반을 조성한 시기이다. 1950년대까지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한국 전쟁까지 겪으며 국내 여건상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물론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최초의 대륙선수권 대회인 1960년 제2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서울에서 일곱 차례의 대륙선수권대회가 열렸으며, 1970년대의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개최로 이어졌다.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는 국내에서 탄생한 세계선수권대회로서 특별하며, 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공식적으로 국내 첫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개최 이자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1988년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감격 적인 세계선수권대회 개최(1970년대)

1970년대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세계여자농구 선수권대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등 세계 단위의 선수권대회를 국내에서 첫 개최 했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2>와 같다.

표 2. 197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1973 | 서울 | 17개국 | 대한태권도협회 |
| 제2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 1975 | 서울 | 17개국 | 아시아육상경기연맹 |
|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 1978 | 서울 | 68개국 | 국제사격연맹 |
| 제8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 1979 | 서울 | 12개국 | 국제농구연맹 |
| 제3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 1979 | 대구 | 8개국 | 국제정구연맹 |

3. 메가 스포츠이벤트 최초 개최(1980년대)

1980년대에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유도선수권 대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등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최초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하계올림픽이라는 국제종합대회이자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3>과 같다.

표 3. 198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 1982 | 서울 | 10개국 | 세계소프트볼총연맹 |
| 제3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 1985 | 서울 | 30개국 | 세계양궁연맹 |
| 제10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1986 | 서울 | 27개국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 제24회 하계올림픽 | 1988 | 서울 | 160개국 | 국제올림픽위원회 |
| 제5회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 1989 | 서울 | 14개국 | 국제빙상연맹 |

둘째, 도입기인 1980~90년대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이뤄졌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당시 국내뿐 아니라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이벤트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파급효과와 스포츠 유산을 창출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는 1986년 서울 하계아시아 경기대회의 원활한 유치로 귀결되었다. 1986년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국내 첫 국제종합대회였으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사전대회 성격으로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개최 경험과 수준 높은 경기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올림픽 유산은 이후 다른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와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아경기 대회와 같은 동계 국제종합대회를 첫, 개최했고,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외연 확장과 동계 올림픽 유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4. 동계국제종합대회 첫 개최(1990년대)

1990년대에는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복식), 세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팀선수권대회,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등 세계선수권 대회와 함께 동계유니버시아드 및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와 같은 동계국제 종합대회를 첫, 개최했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4>와 같다.

표 4. 199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제10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 1990 | 서울 | 16개국 | 국제핸드볼연맹 |
| 제1회 세계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 1991 | 서울 | | 국제빙상연맹 |
|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 | 1997 | 무주, 전주 | | 국제스포츠연맹 |
|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1999 | 강원 |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 제47회 세계펜싱선수권대회 | 1999 | 서울 | | 국제펜싱연맹 |

5. 특별한 FIFA 월드컵 공동개최(2000년대)

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롤러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세계여자스쿼시 선수권대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세계선수권 대회와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 종합대회와 FIFA 월드컵이라는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열렸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5>와 같다.

표 5. 200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제17회 FIFA 월드컵 | 2002 | 한국/일본 | 32개국 | 국제축구연맹 |
| 제14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002 | 부산 | 44개국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 2003 | 대구 | 174개국 | 국제스포츠연맹 |
|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 2009 | 울산 | 80개국 | 국제양궁연맹 |
| 제77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 2009 | 고양 | 85개국 | 국제역도연맹 |

6. 4대 메가 스포츠이벤트 총 개최(2010년대)

2010년대는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종합대회와 함께 포뮬러1(F1) 월드챔피언십 그랑프리, 세계 4대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해당하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까지 모두 개최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주요 개최 대회는 <표 6>과 같다.

표 6. 2010년대의 주요 개최 대회

| 대회 명칭 | 개최년도 | 개최지역 | 참가국 수 | 주관단체 |
|------------------|-----------|------|-------|-----------|
| 포물러1 월드챔피언십 그랑프리 | 2010~2013 | 영암 | 12개국 | 국제자동차연맹 |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2011 | 대구 | 202개국 | 국제육상경기연맹 |
| 제17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014 | 인천 | 45개국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 | 2015 | 광주 | 143개국 | 국제대학스포츠연맹 |
| 제23회 동계올림픽 | 2018 | 평창 | 92개국 | 국제올림픽위원회 |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2019 | 광주 | 101개국 | 세계수영연맹 |

셋째, 성장기인 2000~10년대는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시기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영암 포물러1 월드챔피언십 그랑프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또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분산개최는 지방 도시의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역량 강화와 유치 열기를 일으켰다.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가 대표적인 성과이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하계유니버시아드의 경우 이전 대회의 성과를 국내 재개최에 긍정적으로 활용했다. 2010년대는 2013년 인천 아시아 실내 무도경기대회, 2015년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같은 새로운 스포츠이벤트와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인 패러 게임, 2015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등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가 이전보다 두드러졌다.

Ⅳ. 메가 스포츠이벤트 스포츠 리터러시 시각으로 바라보기

1. 성공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 마무리를 위한 시각의 확장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시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와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노출되었다. 또한, 현재 2027 충청권 하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고, 준비하고 있는 충청권 역시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7.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평가

| 중심의미 | 주제 | 의미평가 |
|-----------------------------------|-------------|--|
| 감자밭에 떠오르는 희망 (유치과정) | 소원을 풀어주는 의식 |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세상이 바뀌는 줄, 정말 잔칫집이었지요. 무지개 같았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지 않으려고 잠도 설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두 번이나 실패하고 못 하는 줄 알고 울었어요. 데모하고 울고 |
| | 쉬운 게 없구나 | 큰일 하는 보람,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유명한 도시가 되는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외국 사람들 드나들고, 기대되는 올림픽, 우리 가게가 세계의 호텔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
| 찾아오는 손님으로 소문난 잔칫집 (개최준비 과정) | 먼지도 달았다 |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니, 배고픈 줄도 모르게 했어요, 우리도 외국처럼 되는 줄 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고도 하고 |
| | 우리 시대의 전성기 | 올림픽 할 때만 신나고, 호텔들 전부 망합니다, 올림픽 시설을 다시 복원, 큰일을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희망, 다시 제자리로, 먼지처럼, 올림픽을 왜 했는지, 기차역이 있어야 하는데, 끝나자마자 철거하고, 뭔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 손님이 없어요, 대책도 없이 |
| 알 수 없는 실망의 크기 (개최 이후) | 이상한 마무리 | 하나 마나 한 게 돼서, 나쁜 유산이죠, 정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몰라라, 분하고 분하죠, 위로, 실망,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뭘지, 배신감, 남은 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들판을 보니까, 특별한 조치, 서로 모른다고 하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크죠, 하나 안 하나 똑같다, 허무 |
| | 사라진 책임 | |

분명,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하고 4개 시도의 성장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것들 잘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타 시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충청권에서 단 한 번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평창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가장 최근 마무리가 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될 충청권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내용을 공유하고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 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다.

최근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 주민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한 최종필(2022)은 연구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유치과정에서의 경험, 개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개최 이후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1) 감자밭에 떠오르는 희망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초기 유치경쟁에서 성공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개최지역 주민들의 동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대회의 경우 개최신청 자격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철회한다. 그 이유는 개최지역의 주민들은 운영자이며 관중도 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이해요구에 반하면 큰 위험요 소가 되기도 한다. 오랜 세월 지역의 개발규제로 재산권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동계 올림픽대회라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자신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의식과도 같다.

지역주민들에게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는 유럽의 알프스와 같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주민이 되는 꿈이었다. 오랜 세월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개발규제를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들이마시고 부자가 되는 꿈을 꿀 기회의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렇게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개최지역의 주민에게 유치 단계에서부터 희망을 주는 의식이다.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생애과정은 유치와 준비 그리고 개최와 관리단계라는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최종필, 2021). 보통 유치에서 개최까지는 5년에서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7년 전에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치에서 개최까지 최소한 9년이 걸린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유치지역의 주민들은 그 대회가 자신들의 생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유치를 동의하고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유치과정에는 경쟁지역이 생기고, 유치에 실패하는 경험 을 하게 되면 많은 실망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

2) 찾아오는 손님으로 소문난 잔칫집

올림픽대회, FIFA 월드컵대회 또는 아시안게임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기반시설 등을 갖추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2017)는 이 기간이 개최도시의 경제적 효과와 스포츠 유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 한 도시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경쟁에서 성공하고, 본격적인 개최준비에 돌입하면 건설, 환경, 기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안동규(2011)가 주장한 경제올림픽으로서의 핵심적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전국평균에 근접하게 된다는 연구(류천훈, 강주훈, 배주환, 2013)와 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대회와 같은 거대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일은 정말 많고 복잡하다. 특히 경기장 준비를 위한 건설은 특별한 장비와 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외국의 경험 있는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 이런 환경을 목격하거나 준비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개최지역의 주민들은 공사 현장의 먼지와 소음 그리고 갑자기 많아진 방문객들로 인한 소란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동네가 매우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주 개최지는 강원도의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인 평창군 대관령면이었다.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곳은

유명한 스키리조트들이 있다. 그래서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은 대부분 리조트 내에 있어서 시내의 낙후된 시설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2번의 유치실패를 통해서 다른 개최국 도시들의 변모한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건설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 많은 외국인 관계자들과 외국 방송국도 찾아와서 시내를 소개하고 여행하면서 우리도 세계적인 관광도 시가 되었다고 좋아한 것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유치실패를 지나서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한 꿈같은 결실이 드디어 주민들의 생활에 현실로 펼쳐진 것이다. 주 개최지역은 개최식과 폐회식을 거행한 평창군 대관령면이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주로 고랭지 농사와 스키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과 요식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차로 서울에서 약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왕복 2차선의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은 좋았지만, 수송 수단이 다양하지 않아서 편의성은 부족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한 올림픽은 꿈을 현실로 경험한 인생의 전성기였다. 수십 년을 규제와 개발제한 속에서 버텨오고, 다시 십수 년을 응원하고 고대하며 기다린 올림픽대회를 이제 자신들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연극의 주연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신나는 경험을 했다. 스포츠이벤트에서 개최지역의 주민들은 지지자이며 반대자이기도 한데 이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결과를 유산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전성기 시절에 유치하고 개최한 올림픽대회에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참가한 것을 보고 마치 큰 유산을 물려준 것과 같은 자량과 보람을 가졌다. 도진우, 윤승 기, 강주영(2020)도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과 이후의 위성사진을 통한 강원도의 도시화 분석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유산을 남겼다고 했다.

3) 알 수 없는 실망의 크기

강원도의 역사상 최대 행사였던 올림픽대회가 폐막 되고, 개최지역의 주민들이 목격한 것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장들이었다. 이 당시 KBS News(2018. 12. 6) 뉴스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은 동계 장애인 올림픽 개폐회식까지 단 4차례 사용하고 철거됐다. 새로 짓고 해체 철거하는데 약 1,300억 원이 들어갔다.”라며 ‘예산 낭비’라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대표적인 부정적 결과를 보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개최 준비과정에서 건설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대회 개최 때 뉴스에 화려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발전된 지역의 미래를 확신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미래의 도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수하고 즐거워했는데 막상 사라지는 시설물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실망감은 버릴 수 없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최종필, 2019).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전과 이후의 기대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김민철, 이동현, 2016). 그런데도, 결과는 정말 십수 년간 빠르게 달라지는 동네를 보면서 상상한 주민들의 꿈이 허무하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상 이벤트가 자신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지지와 반대라는 의견을 가진다. 평창의 동계 올림픽대회가 개최된 대관령면은 대부분 농사 이외에 숙박과 요식업을 하는 원주민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대회 기간에 일시적으로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확장한 숙박시설과 가게들은 대회가 끝나고 거품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지역에 주는 장점은 사회적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과 편리성의 증진이다. 이러한 장점은 개최지역의 상품성을 높여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 노승만(2018)은 올림픽 이후 강원도민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강릉선 KTX의 운행 횟수 감소와 올림픽 시설의 철거로 인한 허탈감과 불안감이라는 주장과 같이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기 완공한 KTX 고속열차는 서울역에서 강원도 강릉역까지 약 1시간 30분에 운행하는 데 중간역으로 올림픽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에 승용차로 약 15~20분 정도 떨어진 평창읍에 '평창역'으로 개통된 것이 자신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준비하는 조직의 특징은 개최지역을 중 심으로 파견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벤트의 규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추가로 파견되고, 경기와 마케팅 및 홍보 등 특정한 분야에는 체육 단체의 인력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최종필, 2021). 이렇게 구성된 조직은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동안 유효한 한시적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양성철, 김진국, 2018; Xing & Chalip, 2012).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나고 개최지역 주민들이 목격한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을 본 주민에게는 허탈함과 불안감이 있었다. 넘쳐 났다 빠져나간 사람들 속에는 대회를 준비하던 조직 위원회 사람들도 많았다. 전국 각지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과 대회 기간 채용된 도시지역 사람 등 주인행세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건물이 철거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에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거짓말처럼 변해 있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은 당 초 목적이 끝나면 해산이 되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중심으로 한시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도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최종필, 2020) 주민들은 당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최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적인 조직의 특징에 배신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첫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도시의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랜 세월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이라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가 이런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둘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의 주민들은 준비과정에서 긍정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준비과정에는 다양한 시설물 공사로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라는 위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체류로 소비와 고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회 개최 기간에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회와 관계없는 직업과 생활은 하는 주민에게는 소음과 사고 등의 위험요소도 있지만, 지역주민 대부분은 관중이며, 운영자이며, 또는 방문자들과 관계된 사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 주민들은 개최결과에 대해서 당황하고 불만족하였다. 특히 대회 폐막 후 순식간에 사라지는 대부분 책임 있는 대회 관계자와 스포츠 유산인 시설물 등의 철거로 개최도시의 분위기는 갑자기 적막해지고 어수선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 주민의 경험에 관한 비슷한 연구는 경제적 성과나 스포츠 유산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 부족하다. 개최도시의 주민은 스포츠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직접 연관된 높은 관여도의 대상이다. 개최의 결과가 곧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주민들의 생활을 간과한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이벤트와 개최지역 주민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2. 스포츠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와 해석

1) 스포츠 리터러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의미적 차원)

리터러시(literacy)는 문서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문해력이다. Barton, Hamilton, & Ivanic(2005)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실제와 맥락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문화적 실제와 사회적 목표를 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역사적 상황까지 반영하여 생활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 또는

학습 및 훈련 때문에 습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Barton et al., 2005). 때문에, 체육학 분야에서 Margaret Whitehead(2001, 2010)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제시하였다. 그는 “전 일생 신체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동기 혹은 의욕, 자신감, 신체적 역량,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다른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체육학 분야에서 리터러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스포츠에서는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의욕, 정서적 능력, 지식과 이해력,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고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창의성과 상상력까지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문적 사고에서 스포츠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체육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성을 반영하고 제외된 부분은 보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안된 개념이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질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신체움직임 능력과 마음과 지혜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스포츠 리터러시는 단기간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함양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신체움직임만 강조했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으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스포츠과학에도 인문학적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스포츠과학의 중화제는 스포츠 인문학이다.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스포츠는 과학과 인문학의 양 날개로만 비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한국스포츠는 4.0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 30년간은 한국스포츠 3.0이었다. 88서울올림픽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까지도. 이제 스포츠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스포츠는 환골탈태, 또는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전의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피부로 갈아입어야 하는 탈피의 몸부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문적 스포츠”가 그 새로운 피부의 이름이다. “과학적 스포츠”는 한국스포츠 3.0을 위한 완벽한 강철 피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냈다. 그 과정

에서 피부 손상과 질환이 생겨났고 그것 중에서 인문적 치료가 필요한 부위와 질병에 인문적 스포츠를 적용해야 한다. 자, 비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도대체, 인문적 스포츠란 무엇인가? 한국스포츠 4.0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동력으로서 인문적 스포츠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과학적 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인문적 스포츠는 크게 2가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패러다임 수준이며, 둘째는 구체적 활동 수준이다.

패러다임 수준은 말 그대로 체육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 관점, 철학으로서의 인문적 스포츠다. 패러다임 수준의 인문적 스포츠는 안목이자 태도이다. 관념적이다. 반면에, 구체적 활동 수준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 그 활동의 결과 등을 지시하며, 감각적으로나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수준인 “구체적 활동으로서의 인문적 스포츠”가 바로 우리에게 요긴한 개념이다. 실제적 수준에서 인문적 스포츠는 “인문적으로 향유 하는 스포츠”(또는 스포츠를 인문적으로 향유 하는 것)를 말한다. 이것은 2가지 양식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문적으로 향유 하는 스포츠”로서의 인문적 스포츠는 “인문적으로 수행하는 스포츠”와 “인문적으로 표현하는 스포츠”가 있다. “인문적으로 수행하는 스포츠”(이하 수행 인문 스포츠)는 과학적 지식을 운동 수행 시 적용하는 것처럼, 인문적 지혜를 운동 수행 시 활용하는 것이다. 스포츠 행위에(스포츠)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적 지혜를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과정)와 그 행위로 얻어진 결과를 모두 인문적으로 수행되는 스포츠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양식의 스포츠다. (스포츠) 문학적 지혜를 어떻게 농구를 향유 하는 것에 적용 시킬 수 있을까? “인문적으로 표현하는 스포츠”(이하 표현 인문 스포츠)는 운동 수행을 분석하여 그것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추출하는 것처럼, 운동 체험에 숨겨진 인문적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적 활동에 스포츠를 소재로 삼아 표현하는 것(작품들)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과정)와 그 행위로 얻어진 결과를 모두 인문적으로 표현되는 스포츠라고 부른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인문적 양식들을 스포츠를 소재로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명이 시작된 먼 옛날부터

각종 운동으로부터 시, 소설, 회화, 조각, 성찰의 결과를 얻어왔다.

전자, 즉 수행 인문 스포츠는 주로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나 종목별 윤리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윤리교육과 스포츠맨십교육에서 스포츠영화, 다큐멘터리, 소설이나 자서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감독들의 라이벌팀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 발견, 선수들의 슬럼프 극복이나 멘탈스킬 강화에 시, 음악, 회화 또는 자서전을 감상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과학적 스포츠만큼의 직접적 향상 효과는 올리지 못하지만, 과학으로 닿지 못하는 측면, 과학의 효과가 다한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효과와 간접적 효용이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

후자, 즉 표현 인문 스포츠는 현대에 와서 급격한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십 년간 폭발적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야구, 축구, 골프 등 인기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각종 평론집과 에세이들이 출간된다. 특히, 아마추어 운동애호가들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운동 체험을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수필, 만화, 웹툰, 블로그, 일기 등)로 종이와 인터넷으로 출판하고 있다. 스린이로부터 마니아가 된 전 과정을 즐거운 글 읽기로 초대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촉발제가 되어 각종 스포츠 관련 전시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예로,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몸∞맘 특별전).

인문적 스포츠는 이처럼 우리가 인문적 지식, 인문적 안목, 인문적 정신이라고 일컫는 지혜와 관점으로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고 부각하게 시키며, 그것을 다시 스포츠에 적용해 활용하려는 노력이다. 간단히 말하여, 스포츠를 인문적으로 향유 하려는 시도다(마찬가지로, 과학적 스포츠는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향유 하려는 시도다). 이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한다는 통상적인 표현보다는, “향유 한다”는 용어가 인문적 스포츠에 더욱더 정확하고 적절하다. 스포츠를 제대로 향유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인문학이 필요하다. 향유 하기는, 쉽게 표현하면, 즐기는 것이다. 맛나게 체험하는 것이다. 인문적 스포츠는 스포츠를 인문적으로 향유 하자는 새로운 주장이며 애원이다.

때문에, 우리 각자가 스포츠를 인문적으로 향유 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스포츠 리터러시” (sport literacy, 줄여서 sporacy)라고 판단된다.

운동소양(運動素養) 또는 운동향유력(運動享有力)이라고 한다.

간단히, 스포츠를 잘 하고,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는 자질이다. 반면에,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스포츠 컴피턴시”(sport competency)가 필요하다.

운동 기량 또는 운동수행력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부르기, 그리기, 만들기, 모으기, 나누기, 느끼기, 셈하기, 생각하기, 사랑하기 등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즐기기에는 크게 “하는 것으로 즐기기”(能享有), “아는 것으로 즐기기”(智享有), “느끼는 것으로 즐기기”(心享有)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즐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능 소양, 지 소양, 심 소양이 필요하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능·지·심의 삼 차원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능·지·심 소양이 있어서 능·지·심 향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능 지심 소양은 또한 능 지심 향유를 통해서 개발된다. 운동향유를 통해서 운동소양이 길러지고, 길러진 소양으로 더 나은 향유를 하게 되는 피비우스적 연관성으로 스포츠 리터러시는 자라난다.

하는 것으로 즐기기(능 향유)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축구나 농구나 수영이나 태권도를 실제로 몸으로 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나아지고 경기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즐기는 방식이다. 아는 것으로 즐기기(지 향유)는 인지적 소양이 관여되는 즐기기다. 스포츠 시, 소설, 자서전, 에세이를 읽는 것, 자신의 스포츠 체험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내는 것, 역사적 자료나 학술적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연구하는 것, 스포츠 기능을 향상하게 시키는 복장이나 기구나 건축물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느끼는 것으로 즐기기(심 향유)는 감정과 정서, 마음과 도덕, 그리고 영성과 영혼으로 느끼면서 맛보는 것이다. 특정 팀과 선수 팬으로서 응원하고 사랑하기, 팀과 선수 관련 각종 스포츠 기념품 사 모으기 같은 팬 질 하기, 월드컵이나 종목별 국제경기대회에서 한국팀과 선수들 서포트 하기, 올림픽 경기나 단일종목 국제대회 시에 자원봉사나 금전 기부하기, 빙상 경기장

위에 한 번도 선 적 없지만, 컬링팀, 피겨 선수,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단 진심으로 격려하기 등이다.

그러므로, 다소 포용적으로 말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즐기기” (향유 하기)다. 하는 것만이 즐기기다 아니다. 과학적 스포츠에서는 운동하는 것과 응원하는 것만이 즐기기의 범주에 들어온다. 반면에, 인문적 스포츠에서는 그 포함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체육인이나 애호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동안 자신이 스포츠를 향유 하였다는 사실을 의식 하지 못하고 있었다. 능 향유를 하지 않았으니 스포츠를 향유 했다고 스스로 의식 하지 못한 것이다. 인문적 스포츠의 방식으로 자신이 이미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활성화 전략 분석

지금 우리는 최대 메가 스포츠이벤트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공동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6번째 국가가 되었다.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고, 기대가치도 높을 것이다. 단지 지금까지 충청권에서 단 한 번도 유치했던 경험이 없었고, 또한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에 4개 시도가 연대한 이벤트는 처음이기에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당위성은 크게 국가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즉, 국가적 가치 측면에서는 첫째, 높아진 한국 위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경제 대국의 꿈을 일으키려던 일본의 전략이 코로나 19로 인해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K-방역과 K-POP의 열풍이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차원에서 유치의 당위성이 있다.

둘째,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력은 지방 시도가 가진 역량의 총합을 의미한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지역이자 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배후지임에도 그에게 걸맞은 역할을 주지 않았었다. 특히 국제적 상품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국제 스포츠이벤트 참여는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청권은 국제스포츠이벤트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스포츠 관련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낙후 정도가 심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는 차원에서도 개최의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측면의 개최 당위성은 첫째,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국제스포츠 이벤트 단기간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충청권의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지역의 미래 생존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충청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므로 그동안 저평가됐다. 국내 스포츠이벤트는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둘째, 충청권의 가능성이다. 충청권은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 측면에서 대학, 연구단지, 산업단지 내에 클러스터 등 한국의 학술·연구 중심지이며, 친환경 생태 산업의 중심지로서 저탄소 중심사회에 대비한 차세대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즉,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대회 공동유치는 지자체 재정 및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SWOT 분석

표 8. SWOT 분석

| 강점 | 약점 |
|---|--|
|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역량 확보 대회 개최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IT 기술의 역량과 교육적 역량의 확보 | 경기시설의 노후와 부족 콘텐츠의 부재(문화·관광자원 개발) 대도시 중심의 베드타운화 국제대회 경험 부족 |
| 기회 | 위협 |
|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 중·장기적 투자로 인한 비용 절감 지역 스포츠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시도의 브랜드가치 상승 | 충청권 대도시 위주의 발전 정책으로 인한 개발 불균형 국내·외 도시 간 관광 경쟁 심화로 인해 스포츠 관광 수요의 변동 가능성 코로나와 같은 상황 발생 가능성 |

2) SWOT 분석에 따른 활성화 전략

표 8. 활성화 전략

| SO 전략(강점/기회) | ST 전략(강점/위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 전략 추진 -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교육의 연계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기존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 이미지 창출을 위한 관광·문화 자본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 도출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 -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 유치 및 운영 전략 수립도 고려해야 함 - 경기장뿐 아니라 국내외 참여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도입 |
| WO 전략(약점/기회) | WT 전략(약점/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재정비하고 신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융복합 스포츠 관광상품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네트워크 형성 -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에 대한 대안 마련 -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의 변동 문제 해결 |

3) 스포츠 리터러시 관점에서 메가 이벤트에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해석)

지금까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탐색해 보았다. 다양한 의견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명암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되고 보도되고 거론되었던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거시적 담론은 국가와 조직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는 미시적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것만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하는 것’은 스포츠를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라는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두에 전사한 것처럼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을 잘 할 있고, 잘 알 수 있으며, 잘 느낄 수 있는 자질로 설명될 수 있다. 그중 능소양은 스포츠를 신체적으로 잘 수행해서 뛰어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자질이 능력이며, 지소양은 스포츠에 대한 지시적 내용을 잘 아는 것과 활용하여 분석, 판단

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심소양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 흥미, 애정 등으로 스포츠에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마음가짐과 자질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향유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능향유는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으로 누린 것으로 기술적이 신체적인 차원에서의 누림으로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으며, 지향유는 인지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누리는 것, 끝으로 심향유의 경우 정서적이고 태도적인 차원으로 누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행복을 찾을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유치되었고, 조직위가 꾸려졌고, 경기장 건설 및 보수, 그리고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지금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어떻게 즐기고, 향유 할 것인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중심에 스포츠 리터러시 사고의 접목을 해 보자는 취지이다.

가장 먼저 스포츠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능향유 차원에서 운동소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중심에 있는 세종시와 대전시 두 도시 간 범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일상생활과 스포츠를 근거리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기면서 더욱 확장 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 체육회 차원 혹은 민간 자원의 운동 소양 함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기관, 행정기관, 기업, 여성, 어르신, 대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축제를 하면서, 알아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향후 지향유로 표현되는 운동향유를 통해 심향유로 해석되는 행복영역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 이것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이해하고 즐기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운동 소양이 형성된 상태에서 인지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영역으로의 운동향유의 확장이다. 즉,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하자는 차원으로 예정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본 혹은 유산으로 확장

시킬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직위와 시의회, 체육회, 교육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된 것들을 체험하고, 표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적 유물 혹은 유산으로 후속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제2의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대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연구모임 형태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스포츠 리터러시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는 것은 스포츠를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이론이 근거를 뒷받침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향유 방법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세종시와 대전시가 자랑하는 스포츠과학의 접목을 통해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식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충청권 4개 시도 전역 혹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관광 홍보 투어 코스의 개발을 통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심향유로 표현되는 스포츠를 통한 행복권의 추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적이고 신체적 차원으로 누리는 능향유를 거쳐 그러한 차원을 확장하여 스포츠를 인지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누리는 지향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심향유는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를 통해 발현될 정서적이고 태도적인 차원으로 누리것으로 스포츠를 즐기으로써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이다.

즉, 심향유 행복은 느끼는 것으로 즐기기는 영역으로 감정과 정서, 마음과 도덕, 그리고 영성과 영혼으로 느끼면서 맛보는 것이다. 참가하는 국가와 선수에 대한 배려, 진정한 팬으로서 사랑하고 응원하기, 국가와 팀 그리고 선수 관련 각종 기념품, 팬 질하기, 국가별 서포터즈 활동, 자원봉사, 기부 활동,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스포츠를 알아가고 즐기기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다소 포용적으로 표현하자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즐거움을 통한 행복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는 것만이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스포츠에서는 운동

하는 것과 응원하는 것만이 즐기기의 범주에 들어온다. 반면에 인문학 스포츠에서는 그 포함 범위가 넓게 확장된다. 그리하여 체육인이나 애호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스포츠를 향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능향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를 향유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체육전공자, 관계 공무원, 이벤트 관련자뿐 아니라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의 자각시키길 바라는 차원이다.

실상 뜯어 보자면,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던 것들이다. 하지만,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는 사실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뭔가 큰일 해야 한다는 중압감 아닌 중압감에 사로잡혀, 큰 경기장의 건설, 도로 확충, 호텔과 같은 거시적 환경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거시적이고 큰 과업은 조직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미시적 차원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서로 더 연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본 발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V. 맺음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유치는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한 개 시도의 유치가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유치하는 차원에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공동개최는 단일 지역을 넘어 하나의 권역으로의 충청권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모범적 선례 및 지역과 사회 통합·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권 발전의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충청권은 백제문화유산의 중심인 충남, 첨단과학의 도시 대전, 전통 무예의 고장 충북 그리고 젊은 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서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사회통합과 한층 더 발전된 경제력으로 새로운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러한 기대가 충분조건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하지만, 다양한 메가 이벤트는 대체로 국가 혹은 지자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 혹은 시민들에게 대회 마무리, 혹은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그래서, 유치전부터 국민, 혹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치된 후에도 끊임없는 정보의 공개와 아이디어 생성에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마무리 시에도 온전히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거시적 환경 접근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스포츠 리터러시를 적용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시도 간 화합과 공동의 목표달성,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성적, 좋은 경기장, 교통, 통신, 숙박, 입지, 성적,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들에 집중되었던 측면이 매우 컸다.

대회의 성패를 가늠 짓는 중요한 잣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 전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느낀 것들을 인지하여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향유 하는 모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향유된 것을 정서적이고 실제적 행동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인텍스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위, 시의회, 체육회, 공공기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적인 관계기관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30년사 1989-2019**. 서울: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09). **동 하계올림픽 · 월드컵 국내 유치 기초 타당성 분석**.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김미숙, 하용용, 손환, 이재학, 정현우, 김영선, 이학준(2019). **서울 체육사 - 제2권 현대체육 행정과 시민 생활**. 서울:서울역사 편찬원.
- 김재학, 김성조(2020).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산 및 이슈에 기반한 지역관광의 방향: 포스트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5).
- 노승만(2018). 평 동계올림픽의 효과와 강원도 과제. **월간교통**, 27-32.
- 도진우, 윤승식, 강주영(2020). Landsat 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도시화 효과: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하계 종합학술발표회**, 259-260.
- 류천훈, 강주훈, 배주한(2013).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실증분석. **관광 레저연구**, 25(1), 47-62.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3차 스포츠 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배만규(2016). 메가 이벤트 개최의 허와 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제언-. **한국관광학 회 국제 학술발표 대회집**, 80, 39-46.
- 안동규(2011). 평창동계올림픽, 경제 올림픽으로서의 성공조건. **국토**, 22-29.
- 신승호, 전기제(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 **스포츠 과학연구소 논총**, 34
- 양성철, 김진국(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 위원회 환경 분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7(1), 275-290.
- 유창호, 나주몽(2017).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효과에 관한 연구-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무형의 레거시 형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6).
- 이동규, 이미혜(2021). 메가 스포츠이벤트 서비스품질에 따른 브랜드 자산이 지역 이미지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42, 23-43.
- 이종현, 김화룡, 전상완(202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위한 환경 분석 및 전략. **한국융합사회학회지**, 13(5), 333-346.

- 염두승(2016).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협력 의사가 지역발전 및 스포츠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1-12.
- 임기태, 김용재, 김도훈, 신승호(2014).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관여도와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의 매개 효과 검증. **체육과학연구**, 25(1).
- 정희준(2008).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경제효과: 그 진실과 허구의 재구성.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21(1), 229-251.
- 조흥식(200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최종필(2019).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성과에 대한 인식과 개최도시 간의 차이. **코칭능력개발지**, 21(3), 59-66.
- 최종필(2020).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준비 조직 내 갈등유형에 관한 연구: 조직 행동론의 갈등분석이론을 중심으로. **코칭능력개발지**, 22(3), 39-46.
- 최종필(2021). 스포츠이벤트 생애주기별 통합경영관리. 서울: 대한 미디어
- 최종필(2022).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 주민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24(3), 83-91.
- 함석중(2016).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시설의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연구. **호텔 리조트연구**, 15(2), 371-392.

토론회

토 론 1

김재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스포츠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I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추종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제문과 관련해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조성될 스포츠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발제자에게 견해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II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 및 시민의 스포츠 참여가 해법일 수 있다.

첫째, 메가 스포츠 기반시설을 지역사회의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 기반시설 확충, 막대한 경제적 이익,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등 시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개최되지만 정작 현실은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개최 도시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대회에 사용된 경기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관리비용만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스포츠 기반시설의 사후 활용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해 직접 즐기고 이를 통해 삶을 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소양, 즉 ‘스포츠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을 지역사회의 스포츠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단순히 대회 기간 관객으로 참여한 것에 끝나지 않고 대회 이후에도 직접 경기장에서 원하는 종목을 체험하면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다양한 소비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장 유지·관리나 다른 대회 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조성된 스포츠 기반시설들이 대회 이후 동계 스포츠와 연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철거되거나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스포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향후 들어설 시설들이 대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존재가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시설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생활스포츠·전문스포츠 등 우리 시 스포츠 전반을 활성화하여 유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발제자께 여쭙고자 합니다.

■ 뚜렷한 목표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둘째,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시설을 대회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활용하려면 사전에 대회 개최를 통해 이루려는 뚜렷한 목표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갖추면서 동시에 유망주 발굴·육성과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 및 시민참여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단순히 대회만 개최한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으며 목표의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비로소 거둘 수 있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우리 시는 육상, 탁구, 수구 세 종목을 개최하게 되는데 육상의 경우 사실상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으로 애초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의식과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종목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가 또 다른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맺음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이 연대하여 유치해낸 첫 번째 메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대회 개최 경험이 전무한 만큼 남은 기간 국내외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며, 여기에는 마땅히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 론 2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토 론 3

최원석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상생 협력방안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 머리말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공동으로 개최.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03년 대구, 2025년 광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그동안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했지만 충청권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처음.
- 앞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2027년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를 스포츠 리터러시 관점에서 대전과 세종 나아가 충청권 모두 지속 발전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함.

□ 지역 간 협업과 협력으로 대회 유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공동유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2년 대회 개최 도시 유치, 2023년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순조롭게 대회 분야별(기획, 홍보, 시설, 마케팅 등) 준비에 최선.
- 충청권에서 개최될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를 적용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느낀 것들을 인지하고, 스포츠 지식공유 및 활동 등 향유하는 모듈을 구현하여 시민들의 행복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지향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

-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체육 허브도시인 대전인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및 스포츠·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사업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내·외 대회 유치에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스포츠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시민들이 직접 즐길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유치 및 생활체육대축전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문화 조성.
- 대전과 세종 두 도시 간 상생협력 공동체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을 통해 대전·세종 동호인들 간 화합과 협업 등 생활체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
- 앞으로 2027년 충청권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청권은 4개 시·도 공동 개최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개최 운영하기 위해 각 시도 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
- 우리 시는 꾸준히 대회 준비에서 앞서 시·도간 간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대회 유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대회종료 이후의 지역사회, 스포츠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계속 유지하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

□ 맺음말

- 문화와 예술 젊음이 어우러진 전세계 대학생들의 국제스포츠 문화 축제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면서 명확한 목표와 전략 의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국제대회로 만들어 나간다면

전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대전, 세종 등 충청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 앞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 간의 협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가지 목표 지향점을 바라면서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제대회 이후에도 지역 간 지속적으로 업무공유 및 상생협력을 활발히 진행한다면 대전, 세종 충청권이 동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임.

토 론 4

방병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방안

1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 2022년 11월, 충청권 역사상 최초의 국제종합경기대회인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번 대회 유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이뤄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 대부분의 국제스포츠행사는 개최도시에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이번 대회 개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사례를 통해 국제행사 준비와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그러나 4개 시도가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제적 내실은 기하고, 파급 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는 대회를 추진한다면 충청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3년 9개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이다.

■ ‘충청 메가시티’ 공동 개최

- 충청메가시티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졌으나, 국제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었다. 이번 국제스포츠 이벤트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 대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도 간 불가피한 갈등을 극복하고 대회 성공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중심의 메가시티로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충청권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협력체계 구축

- 우선, 4개 시도와 정부, 조직위, 체육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회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함께 추진하는 체계 마련과 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공투자과 기업스폰서십 유치 지원, 대회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까지 대회 준비와 개최 전반에 대해 지자체 간의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환경·자원 등 충청권 결집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다.
- 경기장, 훈련장, 미디어센터, 선수촌 등 충청권 대회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분담을 통해 대회 개최에 따른 위험도를 완화시키고 충청권 4개 시도의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축에 따른 환경적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축제’ 개최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앞선 추종호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관광 등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과 행복에 집중하면서 스포츠 축제를 어떻게 즐기고, 향유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 대회 유치에 대한 충청권 지역민의 인식 설문조사에서 86.5%가 유치 찬성의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이미 충청권 시도민들은 대회가 충청권의 경제발전과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

- 조직위에서는 시민의식 교육, 자원봉사, 시민 서포터즈, 대회 홍보 등 ‘시민참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참여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9,54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대회의 서포터즈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국제대회의 주인은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개최도시의 시민이다.
- 또한,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만큼, 국내외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직접 대회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블로그 기자단, 글로벌 리포터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생 봉사단을 구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홍보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젊은도시 세종시와 대학경기대회의 특성을 살려 20~30대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회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대회유산 프로그램 ‘헬시 캠퍼스(Healthy Campus)’

- 충청권은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음 세대로 지속될 수 있는 대회 유산(레거시)을 창출하고, 시민의 체육 향유 제고 및 지역상생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특히 대회유산 프로그램인 헬시 캠퍼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헬시 캠퍼스는 캠퍼스 내 학생들의 웰빙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 홍보 및 참여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FISU Healthy Campus >

- **(평가기준)** 100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7개 영역* 평가 후 라벨 수여
 - * 1) 체육활동 및 운동 2) 영양 3) 질병예방 4) 정신적·사회적 건강
 - 5) 위험 행동 6) 환경 및 지속가능성 & 사회적 책임 7) 건강한 캠퍼스 관리
- **(가입현황)** 32개국 101개 대학 가입 / 47개 대학 인증 완료('22.8.기준)
 - ※ 한국 명지대 플래티넘 라벨 인증('22.2.)
- **(기대효과)** 대학 구성원의 웰빙을 보장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대학 운영

- 더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충청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개선, 체육 향유 등의 지속가능한 대회 유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선수와 관중이 편안한 경기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편리한 교통, 관광 프로그램, 마케팅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충청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 시도별 관광, 문화, 환경 자원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교통망 확충

- 충청권은 중부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부분의 광역교통망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로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충청권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원활한 대회 운영과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회 전용 교통카드를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대회 관련 시설로의 이동을 위해 무료 셔틀 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 탄소배출 감소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수소 및 전기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 세종시는 전기버스를 일부노선에 운행 중에 있으며 무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우리 시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을 목표로 대전 반석~세종 청사~조치원~오송~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 노선안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세종~청주 및 세종~공주 광역 BRT 운영을 위한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최근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참가선수 및 관계자를 위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선수들은 경기의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위해 참가한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개최국, 개최도시의 전통적인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충청권은 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대전(과학), 세종(행정), 충북(힐링·뷰티), 충남(역사)의 강점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 충청권 전역을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통해 대회 개최 이후에도 방문객에게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4개 시도 협력을 통해 충청권의 지역별·테마별 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 대중교통 증편, 지역대표 맛집 선정, 상인회 연계 쇼핑정보 제공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토 론 5

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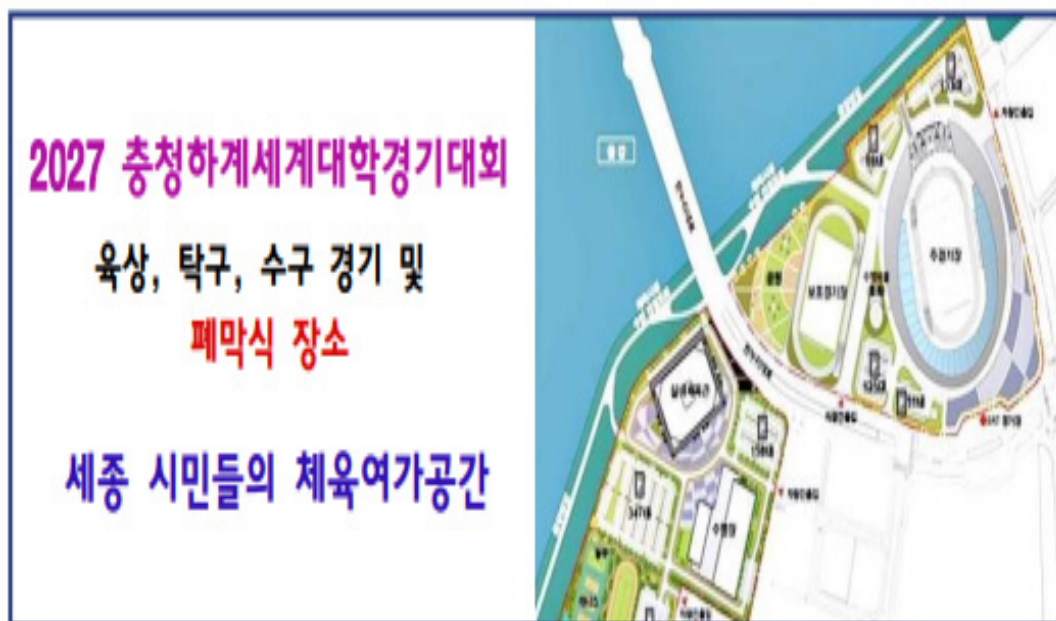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 위 원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027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충청권 4개시도가 개최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단일지역을 넘어 하나의 권역으로 충청권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사회통합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추중호 교수님의 발제에 적극 공감한다.

아울러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바라보는 시선들인 성적, 좋은 경기장, 교통, 숙박 등 사회 기반시설이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또한 적극 공감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만을 놓고 볼 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는 타시도와 달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운동 시설이 각 동네마다 잘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반해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만한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의 당면 과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보다 경기장, 교통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이 당면 과제이다.



1. 세종시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될 수 있을까?

하계세계대학 선수권 개최를 위해 세종시에 건설되기로 한 스포츠 기반시설은 1만 5천명이 사용할 선수촌 건립, 폐막식과 육상 경기가 펼쳐질 2만석 규모의 메인스타디움, 탁구 경기가 펼쳐질 4000석 규모의 실내경기장, 수구 경기가 펼쳐질 50m 10레인의 실내 수영장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4개 시도가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할 당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약속한 사항이다.

세종시에 이 종합체육 시설을 건립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4천5백억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세종시나 의회에서는 큰 비용이 드는 종합체육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하여 왔다. 본 토론자 역시 4월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과연 세종시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든다.

| 경제적 효과 | 인프라 구축 |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 |
|--|--|--|
| <p>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p> <p>경제적 효과 약 2조 7289억원</p> <p>취업유발효과 약 1만 499명</p> |  <p>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p> <p>광역 교통망 확충 (KTX 조속완공 계기)</p> <p>숙박시설 확충</p> <p>글로벌 도시로 도약</p> | <p>국내·국제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 2028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생활체육대축전, 아시안게임 등</p> <p>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세종시 상권 활성화</p> <p>문화 공연, 행사장 활용</p> <p>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 확대</p> |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문제와 맞물려 세종시의 종합운동장 건설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세종시에 종합경기장 건립이 무산될 경우 4개 시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육상경기는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폐막식은 어디서 열 것인가?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얻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4개 시도 협력의 첫걸음은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설에 있다.

현재 종합운동장 건설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세종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본 토론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첫 삼을 떠도 기한 안에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할 경우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려한 대로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지 못할 경우 각 시도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은 물론 세종시의 경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4개 시도 시장, 의회, 체육회장 등이 힘을 모아 세종시 종합운동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4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3. 성공적 개최를 통한 메가시티로의 도약

이번 대회는 충청권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국제종합스포츠대회이며 4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 개최한 첫 사례이다. 추교수님의 발제처럼 공동개최는 단일지역을 넘어 하나의 권역으로의 충청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모범적 선례 및 지역과 사회 통합·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로써 충청권 발전의 전환점을 창출하는데 하계 세계대학경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다른 4개 시도가 모이다 보니 조직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때 보다 중요하다.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조직위는 출범단계부터 4개 시도 시장과 체육회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조직위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현재는 조직위가 공식 출범하여 직원들도 채용하고 있는 단계라 안정상태로 들어갔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예컨대 조직위 위원장을 4개 시도 시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인력 채용이나 운영 방향 등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위에서는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잘 설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본 토론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창섭 부위원장이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의 전권을 주고 시장들은 최소한의 간섭만 했으면 한다. 보고 체계가 복잡하고 사공이 많으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

끝으로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보통 도시가 인구가 많을 때 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서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하고 있다.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 때,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경우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토 론 6

최대현

대전광역시 체육회 본부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

-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한다는 것이 이전의 개최형태와는 사뭇 달라 그 어느 대회개최보다 시사한 바가 크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도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여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다. 이는 도로와 철도망을 이용한 충청권을 한 두시간대의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으로 묶어 잘사는 충청으로 도약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충청인 들이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양질의 스포츠 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제자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발제한 “운동을 잘 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으며, 잘 느낄 수 있는 자질로 설명되는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이 결국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행복을 찾을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라는 발제에 동의한다.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대전과 충북, 충남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 향후 행정권, 생활권을 통합하거나 연계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편견과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만 메가시티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청권 스포츠계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놓고 어떻게 협력하고 협조하여야만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축이 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 두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안 1> 체육계의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염원 이벤트 추진

- 충청권 종목단체 응원릴레이 ⇒ 각종대회 개최시 현수막 게시, 칭찬 릴레이 인터뷰 진행
- 각 지자체별 성공개최 다짐대회 개최 ⇒ 충청권 시도체육회 총회시 성공개최 다짐결의
- 프로스포츠종목 홈경기 개최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방안 2> 충청권 이웃사촌생활체육대회 신설개최

- 세종부터 시작으로 시도 순에 따라 생활체육대회 개최
- 대회 개최 종목은 5종목 내외 ⇒ 필수종목 3 + 개최지 추천종목 2
- 승패를 떠나 친선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 추진

<방안 3>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종목 중심 (국제)전 국규모대회 유치

- 대회 운영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영 능력 배양
- 본 대회 홍보 및 대회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 리허설 수행
- 시도민 및 동호인에게 양질의 볼거리 제공과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기회제공

<방안 4> 2027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 가속화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 후속조치 추진

- 향후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교류대회 신설
-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구상 및 추진

<방안 5>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표선수 육성

-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에 충청권 연고 선수 선발을 위한 육성책 마련
- 지역별 개최종목 정책적 육성방안 마련 및 추진

앞에서 열거한 방안들을 충청권 자치단체와 체육회에서 정책적 전략 수립을 통한 체육회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과 긍정적인 요인제공으로 향후 충청권이 “운동을 잘 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으며, 잘 느낄 수 있는 자질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행복을 찾을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토론자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로 충청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양질의 스포츠 향유 기회확대로 삶의 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 , 이하 연구모임은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보고회 시작에 앞서, 박란희 부의장이 중간보고 및 토론회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후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 경과를 청취한 후 진행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연구모임 주관으로 회원들을 포함해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이용기, 이중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광역시 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추종호 교수의 “메가스포츠이벤트(2027 충청권 하계대학경기대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Sports Literacy 사고를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

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체육진흥과 방병웅 과장, 세종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유성연 위원, 대전시 체육회 최대현 본부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메가 스포츠 기반 시설이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참여 증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또한 “설계단계부터 경기시설의 사후활용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체육시설 건립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협조 강조 ▲스타플레이어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 강화 ▲국제 대회 개최 사례분석을 통한 철저한 행사 준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과정과 개최 결과는 개최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오는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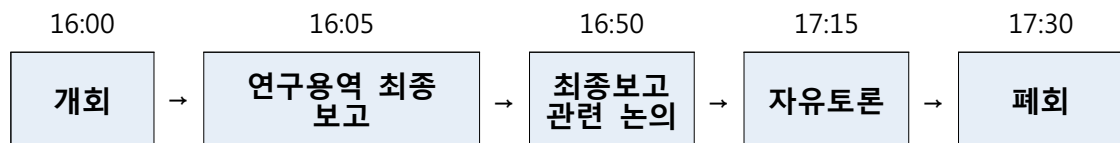
참고 4 언론보도 현황

| 언론사명 | 게재일자 | 헤드라인 기사 |
|--------|---------------|--|
| 계 | 7건 | |
| 프라임경제 | 2023. 10. 31. | 세종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중간보고회 |
| 데일리한국 | 2023. 10. 31. | 세종시의회, 2027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 위한 토론회 열어 |
| 세종의 소리 | 2023. 10. 31. |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묘안은”...세종시의회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
| 브릿지경제 | 2023. 10. 31. | 세종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농수축산신문 | 2023. 10. 31. | 세종시의회, '2027 하계 U-대회'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
| 충청뉴스 | 2023. 10. 31. | 세종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모색 |
| 디트뉴스24 | 2023. 10. 31. |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대전·세종 상생발전 노크 |

제5차 간담회 (2023. 11. 13.)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1. 13.(월) 16:00-17:30
- (장소) 세종시의회 대회의실
- (참석) 회원 8명(김현미, 최원석, 김재형 의원 등 회원 7명, 공동연구원 1명)
- (내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현안사항 논의
- (진행순서)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발표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세환교수
 - 대회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을 위해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다양화와 프레 유니버시아드(Pre-Universiade) 개최
 -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을 위해 생활체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지역간의 생활체육 시설을 공유
 - 세종·대전의 프로스포츠단 구단을 유치하고,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 필요
- (연구모임 회원 의견)
 - (대표의원 김현미) 연구용역 최종보고 결과는 정책에 반영하여 국제 대회 이벤트를 통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 사례가 대한민국의 지자체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김재형 의원)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 필요
 - (최원석 의원)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 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며 프로스포츠단 창단 필요성에 적극 공감
 - (김영현 의원)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활동사진



2023년
연구용역 최종보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상생 협력 방안

한밭대학교
김세환

발표 순서

30분

IV. 협력 과제 및 실행방안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1) 홍보컨셉 및 스토리 발굴

필요성



- 타 대회 대비 떨어지는 인지도, 화제성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홍보 컨셉 수립하고 대회가 갖는 의미와 스토리를 다양한 차원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진단

표 19. 광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활동 기사 모음(2011년)

| NO | 날짜 | 기사 제목 |
|----|------------|---------------------------------------|
| 1 | 2011.11.20 | 2015 광주U대회 슬로건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
| 2 | 2011.11.06 | 광주U대회 조직위, 독립영화 '메와 광주' 제작 |
| 3 | 2011.11.02 | "2015광주U대회 세계에 알리요", 글로벌리포터 모집 |
| 4 | 2011.10.26 | 광주U대회 국문·영문소식지 연 4회 발간 |
| 5 | 2011.10.19 | 광주U대회 조직위,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6 | 2011.10.17 | 광주U대회 조직위 'SNS 활용기법' 무료특강 |
| 7 | 2011.09.28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공식 상징물 개발 |
| 8 | 2011.08.24 | 광주U대회 대학생 홍보대사 본격 활동 |
| 9 | 2011.02.23 | 광주U대회 조직위~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
| 10 | 2011.02.17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사이버외국어스쿨 오픈 |

- 현재 대회 홍보활동 전무. 2015 광주 대회와 비교 시 뚜렷한 차이.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대회 홍보 마케팅을 전담할 대행사 선정 입찰 진행중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1) 홍보컨셉 및 스토리 발굴

실행방안

-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확산
 - => 로고, 엠블럼, 마스코트 등 핵심 요소 개발
 - => 시민 공모 등을 통한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 확산
 - => 4개 시도의 온, 오프라인 홍보자산에 대회 상징물 적극 활용
- 단계별 홍보 계획 수립
 - => 연차별 홍보집중도 고려, 단계별 전략 마련하고 각 시기에 맞는 홍보 전략 구사

표 20. 단계별 홍보계획 예시

| 1단계(초기) (23년 11월 ~ 25년 12월) | 2단계(개최 1년 전) (26년 1월 ~ 26년 12월) | 3단계(대회 시작 직전) (23년 11월 ~ 25년 12월) |
|--------------------------------|------------------------------------|--------------------------------------|
| 인지도 확산 | 홍행사 확보를 위한 홍보력 강화 | 대회 이슈 집중을 위한 홍보 |
| 분특정 다수 대상, 저가 및 무료 홍보매체 활용 | 참가예정자 대상 해외 대학 및 기관 연계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영향력 있는 유료매체 활용 |

● 스토리텔링 전략 수립

- => 마스코트, 지역 출신 홍보 대사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
- => 버츄얼유먼, 메타버스 등 트렌디한 콘텐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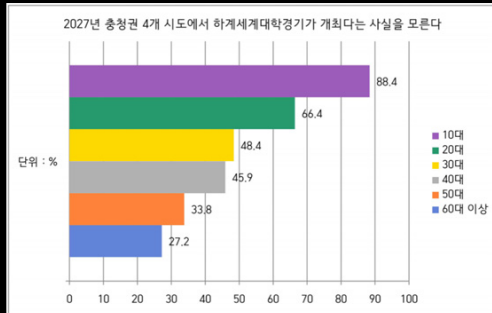
기대효과

- '충청권 메가시티' 등 이번 대회가 단순 스포츠이벤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을 시민들에게 전파, 참여 독려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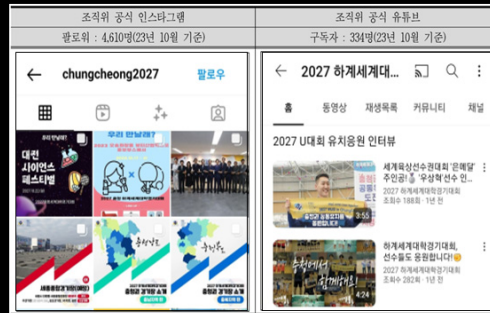
2)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다양화

필요성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중 주목할만한 대목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임. 따라서 이들을 공략할 전략 필요

현황 및 문제진단



- 젊은 층은 주로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현재 조직위의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가 빈약하고 팔로워도 높지 않은 상태임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2)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다양화

실행방안

● 매체별 달성 목표 설정

- => 뉴미디어 : 콘텐츠 업로드 수, 팔로워 및 구독자 수 등
- => 레가시 미디어 : 기획기사 및 일반보도자료 배포 수 등
- => 오프라인 : 지역행사 연계 홍보 참여 횟수 등

● 매체별 운영 전략 수립

- => 뉴미디어 : 전담운영업체 선정, 트렌디한 콘텐츠 생산
- => 레가시 미디어 : 시의성 있는 뉴스 발굴, 이슈메이킹
- => 오프라인 : 4개 시도 주요 스포츠장 정시 홍보 실시

● 매체별 효과 측정 체계 구축

- => 대회 인지경로에 대한 정기 리서치 실시, 매체별 효과 측정
- => 콘텐츠 조회수, 팔로워 증가수 등 평가체계 구축, 방향 설정

● 통합 운영 프로세스 구축

- => 4개 시도 및 조직위가 보유한 홍보채널 통합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구축
- => 대회 관련 홍보 메시지가 전 채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도 홍보담당부서와 협력 체계 구축

기대효과

- 플랫폼 확대를 통한 다양한 연령층과의 접점확대
- 젊은 연령층의 관심 및 인지도 향상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3) 프레 유니버시아드 개최

필요성



- 지역민 관심 환기, 지역 대학 선수 경기력 향상, 대회 전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한 이벤트 개최
- 지역 내 전통 있는 스포츠 행사 부재

현황 및 문제진단



- 현재 양 지역간 대학 엘리트 선수들의 공식적인 교류 대회 없음
- 생활체육 대회 있지만 지속가능성 불투명함

1. 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전략 수립

3) 프레 유니버시아드 개최

실행방안

- 프레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
 - => 지역 대학들간의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 => 참여 확산을 위해 학생회, 동문회 등과 네트워크 강화
- 예산 확보
 - => 대회 운영을 위한 조직위 및 각 지자체 예산 확보
- 대회 사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계기로 지역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역 내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 신설
 - => 차후 충남, 충북까지 참가 시도 확대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상징적인 대회로 육성

기대효과

- 지역 대학 간 프레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대회 분위기 고조
- 경기력 향상 등 선수 경쟁력 강화
- 사전 대회를 통한 시설물 점검
- 대회 사후 양 지역 정기전으로 계승/발전 시켜 지역 교류 활성화, 지역민 소속감 고취등 함양하는 대회 레거시로 승화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4) 생활체육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세종시와 대전시 간의 협회 및 기관 차원에서의 협력 뿐만 아니라, 두 도시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합된 스포츠 플랫폼 구축이 필요

현황 및 문제진단



- 세종시와 대전시 간의 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 시설 교류를 위한 중앙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 부재
- 각 도시 별 별도의 스포츠 협회와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통합적인 협력과 조율은 제한이 있는 상황임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4) 생활체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행방안



- 세종 및 대전 체육회의 통합 기구 설립(선과제)
 -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 스포츠 플랫폼 개발
- ※ 우수사례(대구광역시 대구로, 세종특별시 원스탑)

기대효과



-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 시설, 대회, 프로그램 교류 증진
- 시민 간 교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장 및 스포츠 문화 선진화

2.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5)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필요성



- 세종시와 대전시의 지리적, 역사적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창출하고 스포츠 대회에 반영하여 지역민의 연대감 및 유대감 증진

현황 및 문제진단



- 세종 및 대전에서는 체육회의 주도 아래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이벤트가 규칙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두 도시의 통합 스포츠 대회로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으나, 4개 종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2.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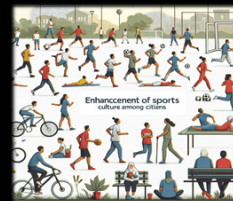
5)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실행방안



- 세종 및 대전 체육회의 통합 기구를 통한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 확장
- 종목별 협회 협력을 통한 통합 대회 개최 추진
- 통합 대회 브랜딩, 아이템(로고, 마스크트) 개발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대회 홍보 실시

기대효과



- 통합 스포츠 대회로 교류 증진, 연대감 유대감 강화
- 통합 스포츠 대회 확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색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이벤트 창출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역량 증진

2.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6) 세종·대전 체육시설 공유

필요성



- 세종·대전의 스포츠 시설 공유를 통한 교류 활성화
- 스포츠 시설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스포츠 역량 증진

현황 및 문제진단



- 독립적 행정 구역으로서 자체적인 생활체육 시설을 운영
- 운영방식, 예약 시스템, 이용 정책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세종 및 대전의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 시설 정보 공유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2. 세종·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6) 세종·대전 체육시설 공유

실행방안



- 생활체육 시설 공유에 관한 세종·대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스크포스팀 구성 및 반영
- 세종·대전 통합 생활체육 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세종·대전의 스포츠 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민의 교류 증진 및 연대감 유대감 강화 및 지역 스포츠 역량 증진
- 통합 스포츠 플랫폼과 연계하여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 참여율 증대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7) 세종 · 대전의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필요성



- 세종과 대전 내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고자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응원을 통한 지역 단합력 증진과 지역 브랜드 가치 증대가 요구됨

현황 및 문제진단



- 대전에는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프로배구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연고를 두고 있으며 이들 구단은 지역 스포츠의 핵심이며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세종은 상대적으로 신생 특별자치시로서 여자축구 세종 스포츠포토가 활동하고 있으나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더 많은 구단 유치의 열망을 갖고 있음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7) 세종 · 대전의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실행방안



- 세종·대전 통합 스포츠 기구를 통한 시장 조사 및 통합 스포츠 브랜딩 전략 개발
-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프로스포츠 스폰서 확보 공동 전략 수립

기대효과



- 세종과 대전의 공동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및 운영을 통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
- 지역민들 간의 공동 응원 문화를 조성,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증진
-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로 인한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발전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8) 프로스포츠 향유 문화 환경 개선

필요성



- 대전에서 활동 중인 프로스포츠 구단의 문화를 특히 세종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통 및 접근성,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진단



- 세종과 대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세종 시민들은 경기장 관련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장을 방문해야 하는 빈도가 높음
- 이로 인해 대전 시민들과 비교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임
- 또한, 세종에서는 상대적으로 팬들이 티켓 현장판매와,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임

2. 세종 · 대전 스포츠인프라 혁신

8) 프로스포츠 향유 문화 환경 개선

실행방안

[통합 교통체계 구축 예시안]

정부세종청사체육관 ↔ 대전월드컵경기장 ↔ 한화생명아미스타크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반석역 ↔ 대전월드컵경기장 ↔ 한화생명아미스타크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반석역 ↔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 하나시티즌 셔틀버스 운행(경기 시)
대전역 ↔ 한화생명아미스타크 셔틀버스 운행(경기 시)

- 세종·대전 스포츠 시설 중심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경기가 있는 날에는 셔틀버스 운영
- 세종 시민을 위한 프로스포츠 서비스 개선
- 프로스포츠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기대효과



- 세종과 대전의 프로스포츠팀을 기반으로 한 연대감 소속감 강화
- 프로스포츠 향유 문화 개선을 통한 교류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프로스포츠 기반 생활 체육 인프라 개선

필요성



- 세종과 대전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해있고 우수한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기에 두 도시 간 전문화된 훈련 프로그램 공유는 지역 협력 체계 구축과 유망 선수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임

현황 및 문제진단



- 대전에는 현재 47개 종목에 걸쳐 156개교에서 학교 운동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세종에서는 10종목 19개교에서만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어 두 지역의 선수 육성 시스템 규모 면에서 격차가 있음
- 대전의 경우 이미 잘 구축된 시스템과 큰 규모로 인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세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실행방안



-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
- 경쟁에서 협력으로 문화 전환
- 유망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기대효과



-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합동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망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유망 선수 발굴을 위한 두 지역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제5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이순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 이하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와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협력 방안의 실행 과제로 ▲대회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활동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주인공이 될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고 말했다.

참고 3 언론보도 현황

| 언론사명 | 게재일자 | 헤드라인 기사 |
|---------|---------------|---|
| 계 | 6건 | |
| 세계뉴스통신 | 2023. 11. 15. | 세종시의회, 하계U대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로컬투데이 | 2023. 11.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
| 세계타임즈 | 2023. 11.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
| 대전인터넷신문 | 2023. 11. 15.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 제5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 뉴스충청인 | 2023. 11.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
| 굿뉴스365 | 2023. 11. 15.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제5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대 표 의 원 김 현 미